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overlapping, wavy bands in various shades of pink,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The colors range from light, airy pinks to deeper, more saturated tones.

# 농업·농촌경제동향

2013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장도환 [zzangdh@krei.re.kr](mailto:zzangdh@krei.re.kr)/심민희 [min2727@krei.re.kr](mailto:min2727@krei.re.kr)

채상현 [csh0331@krei.re.kr](mailto:csh0331@krei.re.kr))

연락처: 02-3299-4363 / 팩스: 02-964-5631

# 목 차

## 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4
4. 물가 .....	6
5. 금융·환율 .....	12

##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산물 물가지수 .....	15
2. 농림어업 취업자 .....	20
3. 농축수산물 수출입 .....	21

##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29
2. 엽근채소 .....	33
3. 양념채소 .....	39
4. 과일 .....	48
5. 과채 .....	56
6. 축산 .....	64

특별 주제 1. 고추·마늘 유통실태와 소비자 구입패턴 .....	73
2.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93

## 【요약】

### I. 국내경제 동향

- 2013년 4/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함.
- 2013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가 늘어나 전기 대비 0.9% 증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함.
- 2013년 4/4분기 총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함.
- 2013년 12월 취업자는 24,96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60천명 증가함.
- 2013년 1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비내구재는 감소하였으나, 준내구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9% 증가, 전년 동월대비 1.3% 증가함.
- 2013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6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 (실질로는 1.6% 증가)함.
- 2013년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3으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대비 각각 0.4%, 0.8% 하락함.
- 2013년 11월중 협의통화(M1, 평잔)는 0.9%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만기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0.4% 증가함.
- 2013년 12월말 원/달러 환율은 1,045원으로 전월말 증가인 1,059원 보다 14원 하락함.

## II. 농촌경제 동향

- 2013년 4/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5.2로 전년 동기대비 2.3%, 전분기 대비 2.5% 하락함.
- 2013년 4/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쌀, 콩(백태) 등의 곡류와 배추, 무, 고추(화건) 등의 채소류, 배(신고) 등의 과일류는 하락하여 약세를 보인 반면 마늘(난지), 양파, 사과(후지) 등의 품목은 상승함.
- 2013년 4/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7.0으로 전년 동기대비 3.9%, 전분기 대비 4.1% 하락함.
- 2013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504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9%, 전분기 대비 12.8% 감소함.
- 2013년 1~12월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5,725백만 달러임.
- 2013년 1~12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총 34,18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함.

## III.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 1. 고추·마늘 유통실태와 소비자 구입패턴

- 건고추의 1인당 연간 공급(소비)량과 식용공급량은 1% 이하의 감소추세임. 마늘의 1인당 공급(소비)량은 연 2%씩 감소 추세임. 최근 외식의 증가와 전통식 회피 등의 이유로 고추와 마늘의 소비가 감소함.
- 건고추 생산농가는 직접출하 비중이 54%로 높음. 건고추의 주요 유통경로는 산지유통인-도매상이지만 최근 산지공판장-대형수요처 비중이 확대됨. 수확기

마늘 유통은 농협, 저장출하기는 깎마늘가공(저장)업체 위주임. 깎마늘 중심으로 유통되며 깎마늘업체의 역할이 확대됨.

- 유통마진은 고추, 마늘 모두 감소추세이지만 최근 다시 증가함. 고추의 유통마진은 2011-12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음. 마늘의 경우 통마늘 도매 및 깎마늘 소매마진은 감소, 깎마늘 가공·도매마진은 증가함.
- 소비자 조사 결과, 고춧가루 형태로의 구매가 많고, 구입하여 조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고추나 고춧가루를 구입하는 경우 안전성의 이유로 친지나 지인을 통한 구입비중이 가장 높았음. 상품 구매 시 주 고려사항은 '원산지'와 '안전성'으로 국내산 구입 비중 높았고, '가격' 이외에 확인하는 사항으로 '원산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외식업체 조사 결과,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로의 구입비중이 높고 마늘은 다진 마늘 형태로의 구입비중이 높으며, 고추는 수확기에 국내산 사용 비중은 높고 마늘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식품가공업체 조사 결과, 가공업체의 판매처에 따라 원재료 원산지에 차이가 있으며, 마늘의 국내산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원료구매는 연중 일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원재료는 대부분 1차 가공형태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전반적으로 업체는 소비자보다 중국산에 대해 우호적으로 나타났음.
- 유통 및 소비 개선을 위해 ①수급지표의 개선과 1차 가공품에 대한 관심 증대, ②원산지표시제도 강화로 국내산 신뢰 제고 ③맛 등급화 추진을 통해 다양해진 소비자 선호에 대응 ④거래소 및 거래정보 확충으로 균형가격 조기 실현, ⑤산지유통조직의 육성과 생산·유통인프라 확충, ⑥수입 제품에 대한 수입 관리 체계 강화, ⑦품질제고를 통한 국내산 경쟁력 향상 등이 필요함.
- 원산지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와 효율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함.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속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특정시기에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고추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매운맛에 대한 등급화를 추진해야 함. 고춧가루(건고추)의 매운 맛을 3~5단계로 구분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표준적 규격 기준을 제시하되, 규제 차원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추진함.
- 산지공판 기능을 확충하고 사이버/인터넷 거래정보에 대한 수집·분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도매시장간 통합 전자거래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추와 마늘의 전국적 균형도매가격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식약처의 HACCP 적용 확대에 따라 가공기능을 갖고 공동유통이 가능한 종합처리시설(유통센터)를 건설하고 농협을 비롯한 고춧가루가공업체나 깎마늘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함.
- 수입농산물의 유통(원산지 관리)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부처 간 관할 영역이 이원화되어 있음. 수입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 간 정보의 공유와 긴밀한 업무 협력이 요청됨.
- 소비자의 고추상품에 대한 고품질 요구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크기, 색도, 수분 등 외적인 요소 외에 고색소, 고신미, 유리당 함량 등 내적인 품질향상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마늘의 경우 한지형 마늘은 중국산보다 품질이 우수하지만, 난지형은 그렇지 못함. 국내산의 탈피수율과 탈피마늘수율이 중국산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품질 개선이 필요함.

## 2.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량이 생산·공급되도록 농업관측, 계약재배, 수매비축 및 수출입 조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구매시기를 늦추거나 대체품목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수요를 조절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가격변동성 심화,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 수급상황 판단기준 및 상황별 대응



매뉴얼 부재 등으로 수급정책 추진의 한계점이 나타남.

- 종전 정부주도로 추진해오던 수급정책을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이를 위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수급 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를 「참여」와 「합의」를 위한 소통 기구로 활용함.
- 채소류 5대품목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사전공개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문제 발생시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단체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함.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품목별 수급상황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간 이견 발생시 협의를 통해 사전조정함.
-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은 농산물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사전에 예시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급을 조기에 안정화하고자 하는 목적임. 대상품목은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양파임.
- 위기단계별 가격범위는 품목별 월별가격을 산출하되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함. 위기경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령하되 안정·주의 단계는 발령하지 않고 경계·심각단계만 발령함. 단, 생육단계에서는 예비경보를 발령할수 있음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관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됨.
- 향후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농업관측정보 분산기능을 부여하고자 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설치근거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 반영하였고, 향후 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품목별 위기단계·조치사항·관련정보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단순한 수급차원에서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6차 산업과 연계를 통한 수급안정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함.

## I. 국내경제 동향 1)

### 1. 경제성장

- 2013년 4/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9%, 전년 동기대비 3.9% 각각 증가함. 2013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8%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자동차, 전기전자기기, 금속제품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1.6% 증가함. 농림어업은 벼, 채소 등 작물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9.7% 증가함.
  - 서비스업은 운수 및 보관, 사업서비스가 감소하였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이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0.6% 증가함.
- 2013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늘어나 전기 대비 0.9% 증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함.
- 2013년 4/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부진하여 전기 대비 3.8% 감소,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함.
- 2013년 4/4분기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나 전기 대비 6.4% 증가,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함.
- 2013년 4/4분기 총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2.0%,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하였고, 총수입은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2.1%,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 심민희 연구원(min2727@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p					2013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 D P 성장률	2.0	2.8	2.4	1.6	1.5	2.8	1.5	2.3	3.3	3.9
최종소비지출 (민 간)	2.2	2.1	1.6	2.1	2.8	2.1	1.4	2.3	2.3	2.5
총고정자본형성 (건 설) (설 비)	1.7	1.3	1.0	1.7	2.7	1.9	1.5	1.8	2.1	2.2
총 수 출	-1.7	3.7	-2.6	-2.5	-4.2	3.8	-3.8	2.9	5.9	8.8
총 수 입	-2.2	-0.4	-3.1	-0.3	-4.2	6.9	2.4	7.2	8.6	8.1
	-1.9	8.8	-3.5	-6.9	-5.2	-1.5	-11.9	-4.6	1.5	9.9
총 수 출	4.2	5.7	3.5	3.2	4.4	4.3	3.4	5.7	2.4	5.5
총 수 입	2.5	4.7	0.5	1.4	3.5	3.5	1.8	4.7	2.3	5.2

주: 2012p, 2013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연간 GDP 성장률은 3.8%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은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물가안정,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수주 및 인허가 감소,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 경제성장 전망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			2014 <sup>e)</sup>			2015 <sup>e)</sup>
	상반기	하반기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 D P	1.9	3.7	2.8	3.9	3.7	3.8	4.0
민 간 소 비	1.6	2.1	1.9	3.4	3.4	3.4	3.8
설 비 투 자	-8.2	6.7	-1.1	8.0	3.7	5.8	6.4
건 설 투 자	5.2	8.0	6.7	3.5	0.0	1.6	3.1
상 품 수 출	5.3	4.2	4.7	4.7	9.7	7.2	8.7
상 품 수 입	3.3	3.7	3.5	4.4	9.5	7.0	9.3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4.1.9. 발표한 「2014년 경제전망」 참고

2. 2014<sup>e)</sup>, 2015<sup>e)</su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 2. 고용

- 2013년 4/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함. 실업률(계절조정)은 3.0%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임.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0.9% 감소함.
- 2013년 12월 취업자는 24,96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60천명 증가함.
- 12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0%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이며, 전월보다 0.1%p 증가함.
- 12월 산업별 취업자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6만5천명), 숙박및음식점업(11만4천명), 도매및소매업(8만8천명), 제조업(8만2천명), 운수업(3만6천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2만7천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만5천명) 등에서 감소함.

### 【고용 동향】

단위: 천명, %

	2012	2013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경제활동인구	25,501	25,091	26,138	26,187	26,078	25,873	2.2
(경제활동참가율)	61.3	59.9	62.2	62.1	61.7	61.5	1.0
취업자	24,681	24,184	25,326	25,410	25,346	25,066	2.2
· 농림어업	1,528	1,167	1,686	1,724	1,504	1,520	-0.9
· 광공업	4,120	4,172	4,199	4,167	4,261	4,200	1.2
(제조업)	4,105	4,156	4,182	4,152	4,245	4,184	1.2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9,033	18,845	19,442	19,519	19,581	19,347	2.7
(건설업)	1,773	1,656	1,801	1,775	1,783	1,754	-0.5
실업자	820	907	812	777	733	807	1.5
실업률(계절조정)	-	3.3	3.1	3.1	3.0	-	0.0

자료: 통계청

【 고용 동향 변화 추이 】

단위: 천명, %(전년 동월대비)

	2013.10		2013. 11		2013. 12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26,268	1.9	26,230	2.3	25,736	2.4
취업자	25,545	1.9	25,530	2.4	24,962	2.3
(고용률)	(60.5)		(60.4)		(59.1)	
·농림어업	1,753	0.9	1,591	-1.9	1,167	-2.3
·광공업	4,234	0.7	4,269	0.9	4,281	2.0
(제조업)	(4,218)	0.7	(4,253)	0.8	(4,264)	2.0
·건설업	1,804	-0.8	1,790	-1.0	1,755	0.3
·도소매·음식숙박업	5,684	1.6	5,769	2.6	5,799	3.6
·전기·운수·통신·금융	3,036	1.2	3,058	2.2	3,067	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9,033	3.6	9,054	4.5	8,894	2.7
실업률	2.8		2.7		3.0	
(계절조정)	(3.0)		(2.9)		(3.0)	

자료: 통계청

### 3. 소비

- 2013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0% 증가, 전년 동기대비로는 2.1% 증가함.
- 2013년 1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 대비 0.3%), 비내구재((전월 대비 0.6%)가 감소하였으나, 준내구재(7.4%)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9% 증가, 전년 동월대비 1.3% 증가함.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3/4p	10월p	11월p
소매 판매	2.3	2.8	1.4	2.6	2.5	0.2	1.1	0.7	1.7	1.3
(내구재) <sup>1</sup>	5.3	4.4	2.9	6.6	7.5	1.2	2.3	-1.4	3.2	-0.9
(준내구재) <sup>2</sup>	-1.1	-0.3	-1.0	-3.5	0.3	1.8	0.9	2.2	-2.5	2.8
(비내구재) <sup>3</sup>	2.3	3.3	1.6	3.0	1.0	-1.0	0.7	1.2	3.0	1.9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3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6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실질로는 1.6% 증가)함.
  - 경상소득은 2.8% 증가, 비경상소득은 4.8% 증가
  - 재산소득(-12.7%)을 제외한 근로소득(3.3%), 사업소득(0.7%), 이전소득(4.6%) 증가에 기인하여 경상소득 증가
  
- 2013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9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실질로는 0.1% 감소)함.
  - 음식·숙박(4.6%), 주거·수도·광열(6.4%), 교통(3.4%)이 증가
  - 가정용품·가사서비스(6.5%), 보건(3.6%) 등의 지출액은 증가하고, 기타상품·서비스(-7.4%), 식료품·비주류음료(-2.5%) 등의 지출액은 감소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소 득	6.1	6.9	6.2	6.3	5.4	1.7	2.5	2.9
(경상소득)	6.2	7.4	6.2	5.9	5.4	2.1	3.0	2.8
(비경상소득)	4.3	-2.5	4.8	17.7	4.2	-8.5	-10.7	4.8
소 비 지 출	2.7	5.3	3.6	1.0	1.4	-1.0	0.7	1.1
(식료품·비주류음료)	2.9	5.9	1.8	4.2	0.0	-1.6	1.1	-2.5
(의류·신발)	5.9	5.8	9.3	2.1	5.2	4.8	0.5	0.9
(교 통)	2.4	3.6	2.6	-3.4	7.8	1.9	0.9	3.4
(교 육)	-2.1	-0.2	0.2	-6.1	-1.4	-6.9	0.9	0.7
(음식·숙박)	4.2	7.9	6.2	3.0	0.4	-0.1	0.4	4.6

자료: 통계청

#### 4. 물가

- 2013년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7.8로 전분기 대비 0.1% 하락, 전년 동기대비 1.0% 상승함.
-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9로 전월 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1.1% 상승함.
  - 상품은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는 1.1% 상승함.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 동월대비 3.8% 하락함. 공업제품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며 전년 동월대비 1.7% 상승함.
  - 서비스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는 1.3% 상승함.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지 수	106.3 (2.2)	107.6 (1.6)	107.4 (1.2)	107.9 (1.4)	107.8 (1.0)	107.7 (1.3)
상 품	108.9 (3.0)	110.2 (1.6)	109.6 (0.6)	110.3 (1.2)	110.1 (0.8)	110.1 (1.1)
농축수산물	112.6 (3.1)	115.2 (2.1)	111.5 (-1.0)	113.5 (0.2)	107.4 (-4.0)	111.9 (-0.6)
공업 제품	107.9 (2.9)	108.6 (1.0)	108.4 (0.2)	108.8 (1.1)	109.7 (1.4)	108.8 (0.8)
서 비 스	104.2 (1.5)	105.4 (1.4)	105.7 (1.7)	106.0 (1.6)	106.1 (1.3)	105.8 (1.5)
집 세	108.3 (4.1)	110.2 (3.0)	110.9 (2.6)	111.6 (2.6)	112.2 (2.5)	111.2 (2.7)
공공서비스	100.1 (0.5)	100.9 (1.0)	100.9 (0.7)	100.5 (0.3)	100.8 (0.6)	100.8 (0.7)
개인서비스	104.8 (1.1)	106.1 (1.2)	106.3 (1.9)	106.8 (1.8)	106.7 (1.4)	106.5 (1.6)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06.9	106.5	106.7	107.8	107.8	107.9
상 품	109.8	108.9	109.0	110.1	110.1	110.2
농축수산물	114.8	109.9	111.0	109.2	106.2	106.8
공업 제품	108.2	108.2	108.1	109.4	109.9	109.9
서 비 스	104.6	104.6	104.8	106.0	106.0	106.2
집 세	109.2	109.5	109.8	112.0	112.2	112.5
공공서비스	100.2	100.2	100.2	100.7	100.7	100.9
개인서비스	105.2	105.1	105.4	106.8	106.6	106.7

자료: 통계청

- 2013년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3으로 전분기 대비 0.4%, 전년동기 대비 0.8% 하락함.
-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5.4로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대비 0.4% 하락함.
- 12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98.7로 채소가 올라 전월 대비 0.7% 상승함.
- 12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4.3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함.
  - 서비스는 운수, 음식점 및 숙박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지 수	107.5 (0.7)	106.3 (-1.9)	105.7 (-2.2)	105.7 (-1.4)	105.3 (-0.8)	105.7 (-1.7)
농림수산물	108.3 (0.8)	105.6 (-5.7)	100.9 (-7.8)	102.8 (-5.9)	98.1 (-4.5)	101.9 (-5.9)
광 산 품	105.7 (3.5)	106.8 (1.3)	107.6 (1.3)	108.3 (2.4)	110.0 (4.4)	108.2 (2.4)
공 산 품	108.6 (-0.4)	106.4 (-3.4)	105.4 (-3.9)	105.1 (-2.6)	104.4 (-2.0)	105.3 (-3.0)
전력/수도/가스	113.7 (7.5)	118.5 (5.1)	120.0 (6.7)	120.3 (5.1)	122.0 (5.7)	120.2 (5.7)
서 비 스	104.2 (1.6)	104.2 (0.4)	104.3 (0.1)	104.7 (0.4)	104.9 (0.5)	104.5 (0.3)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06.8	106.1	105.8	105.3	105.1	105.4
농림수산물	104.7	100.5	103.1	97.6	98.1	98.7
광 산 품	105.2	105.2	105.7	109.4	110.4	110.4
공 산 품	107.4	106.5	105.9	104.7	104.3	104.3
전력/수도/가스	115.5	115.3	115.3	120.6	121.5	123.9
서 비 스	104.4	104.4	104.3	104.9	104.9	105.0

자료: 한국은행

- 2013년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0.7로 전분기 대비 4.3% 하락, 전년 동기대비 3.1% 하락함.
- 12월 수출물가지수는 90.3으로 원화 환율 하락 등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2.1%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월대비 0.2% 상승함.
- 12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92.0으로 수산물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8%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8.6% 하락함.
- 12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3.1로 석탄·섬유제품, 화학제품이 올랐지만, 통신·영상·음향기기, 섬유·가죽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2.1% 하락함.

【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지 수	97.9 (-2.4)	93.8 (-6.5)	95.5 (-4.5)	94.8 (-2.8)	90.7 (-3.1)	93.7 (-4.3)
농림수산물	111.5 (-2.8)	99.2 (-14.6)	101.1 (-10.3)	96.3 (-16.0)	93.9 (-8.6)	97.6 (-12.5)
농 산 물	145.0 (23.8)	149.5 (20.1)	157.5 (11.0)	155.8 (-7.9)	146.3 (1.2)	152.3 (5.0)
수 산 물	103.1 (-9.8)	86.3 (-24.2)	86.3 (-18.1)	80.2 (-20.6)	80.1 (-13.2)	83.2 (-19.3)
공 산 품	97.8 (-2.4)	93.7 (-6.5)	95.5 (-4.5)	94.8 (-2.7)	90.7 (-3.0)	93.7 (-4.2)
화 학 제 품	111.7 (-2.2)	109.0 (-5.7)	108.6 (-4.8)	108.1 (-1.0)	103.9 (-3.7)	107.4 (-3.8)
제1차금속제품	100.6 (-6.4)	93.6 (-9.6)	91.9 (-11.6)	88.9 (-10.7)	84.9 (-10.8)	89.8 (-10.7)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출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95.6	92.9	92.3	91.3	90.6	90.3
농림수산물	105.1	102.3	100.7	96.0	93.7	92.0
농 산 물	143.3	144.0	146.3	149.7	144.5	144.7
수 산 물	95.6	92.0	89.4	81.9	80.4	78.0
공 산 품	95.5	92.9	92.2	91.3	90.6	90.3
화 학 제 품	109.2	106.9	107.6	104.5	103.3	103.8
제1차금속제품	97.6	94.8	93.2	85.6	85.0	84.0

자료: 한국은행

- 2013년도 4/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99.4로 전분기 대비 4.0%, 전년 동기대비 5.3% 하락함.
- 12월 수입물가지수는 99.5로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대비 3.5%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1% 상승, 전년 동월대비 0.6% 하락함.
  - 원재료의 경우, 전월 대비 0.9% 상승함.
  - 자본재는 전월 대비 1.1% 하락한 반면 소비재는 전월 대비 0.6% 상승함.
- 12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4.6으로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대비 7.1% 하락함.

【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110.8 (-0.7)	103.9 (-10.0)	103.8 (-8.0)	103.5 (-5.9)	99.4 (-5.3)	102.7 (-7.3)
농림수산물	107.3 (-7.4)	103.2 (-5.2)	104.9 (-4.4)	100.6 (-6.0)	95.5 (-7.7)	101.0 (-5.9)
농 산 물	111.1 (-10.1)	106.8 (-5.0)	105.5 (-6.6)	98.6 (-11.5)	91.5 (-15.1)	100.6 (-9.5)
축 산 물	110.9 (2.9)	109.0 (-1.7)	113.0 (0.0)	111.9 (1.2)	109.6 (0.3)	110.9 (0.0)
광 산 품	130.6 (1.9)	121.2 (-12.7)	120.8 (-8.9)	122.7 (-5.6)	117.1 (-3.3)	120.5 (-7.7)
공 산 품	102.6 (-1.7)	96.7 (-8.6)	96.7 (-7.5)	95.6 (-5.9)	92.2 (-6.1)	95.3 (-7.1)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입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07.4	104.3	103.2	99.6	99.1	99.5
농림수산물	105.7	103.0	101.9	96.2	95.6	94.6
농 산 물	109.9	107.6	105.7	92.5	91.1	91.0
축 산 물	111.1	108.7	107.9	109.2	110.3	109.4
광 산 품	124.8	120.0	118.6	117.1	116.5	117.8
공 산 품	100.2	97.7	96.7	92.5	92.1	92.2

자료: 한국은행

## 5. 금융·환율

- 2013년 11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 대비 0.9%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2.1% 증가).
- 2013년 11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만기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5.1% 증가).  
- 법인 등의 일시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전신탁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계절조정기준 0.4%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6.8% 증가), 광의유동성(L)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0.3%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말대비 7.4% 증가).

【 통화지표 증감률 (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 동월대비, %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M1 <sup>1</sup>	5.8	8.0	7.4	8.7	8.4	10.2	10.7	9.5	11.5	10.7	12.1
M2 <sup>2</sup>	4.8	5.3	5.0	5.1	4.8	4.9	4.6	3.9	4.6	4.7	5.1
Lf <sup>3</sup>	7.7	8.1	6.8	6.9	6.8	6.6	6.5	6.3	6.7	6.7	6.8
본원통화 <sup>4</sup>	5.1	8.8	13.2	8.8	11.3	11.5	11.1	13.8	14.7	10.1	12.8

-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3년 12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美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영향 선반영 인식, 엔화 약세 등에 따른 국내경기 회복세 악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소폭 반등  
 - 회사채금리도 하락하였으나 연말 기관투자자의 신용채권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폭은 국고채를 하회  
 - 12월중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 규모는 만기도래분이 상당부분 재투자되고 해외중앙은행의 신규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월보다 감소폭이 축소
- CD(91일) 금리는 MMF 등 단기수신 감소 등으로 상승

【 금 리 동 향 】

단위: %

	201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3년)	2.55	2.59	2.87	2.91	2.94	2.90	2.83	2.94	2.94	
콜 금 리 <sup>1</sup>	2.75	2.55	2.49	2.48	2.50	2.50	2.50	2.50	2.50	
CD유통수익률(91일)	2.80	2.72	2.69	2.68	2.66	2.66	2.66	2.65	2.65	
회 사 채 <sup>2</sup>	2.91	2.96	3.24	3.38	3.33	3.29	3.25	3.37	3.36	

-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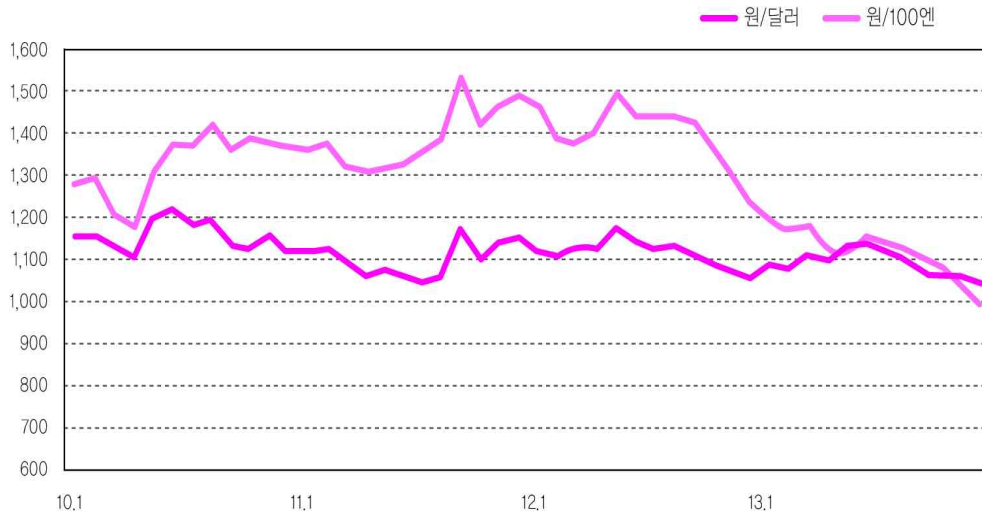
- 2013년말 원/달러 환율은 1,045원으로 전월말 증가인 1,059원 보다 14원 하락함.
  -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시장기대의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1,060원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
  
- 2013년말 원/100엔 환율은 전월보다 40원 하락한 994원을 기록함.

**【 원화 환율 동향 】**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087	1,083	1,111	1,103	1,128	1,144	1,120	1,109	1,073	1,060	1,059	1,045
원/100엔	1,196	1,172	1,181	1,127	1,118	1,158	1,144	1,130	1,096	1,078	1,034	994

주: 기말 고시 환율 기준  
 자료: 외환은행

**【 원화 환율 추세 】**





## II. 농촌경제 동향2)

### 1. 농산물 물가지수

#### 1.1. 생산자물가지수

- 2013년 4/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5.2로 전년 동기대비 2.3%, 전분기 대비 2.5% 하락함.
  - 식료품 중 특히 채소류가 전년 동기대비 20.5%로 크게 하락하였음.
  - 농업용품의 경우는 사료가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하였고, 비료 및 질소가 1.1%, 농업용 기계가 1.0%로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함.

【 농업분야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등락률(%)	
	3/4	4/4	1/4	2/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식료품	111.0	107.7	109.0	107.0	107.9	105.2	-2.3	-2.5
식료품(이외)	106.9	106.1	106.1	105.6	105.5	105.3	-0.8	-0.2
곡물	126.8	130.9	133.4	133.8	133.9	133.2	1.7	-0.5
채소	102.3	102.8	117.5	90.1	93.3	81.7	-20.5	-12.4
과실	205.8	138.4	120.6	118.6	115.5	111.6	-19.4	-3.3
축산물	95.3	87.7	86.5	92.3	96.6	96.4	9.9	-0.2
육가공품	90.1	85.8	84.8	85.3	86.7	86.0	0.2	-1.0
과실채소가공품	105.3	105.3	117.6	116.4	105.9	109.1	3.6	3.0
낙농	115.0	123.3	123.9	123.4	122.9	121.0	-1.9	-1.5
사료	115.3	115.5	117.1	117.6	117.8	117.2	1.5	-0.5
비료및질소	103.8	103.8	105.0	105.0	105.0	105.0	1.1	0.0
살충제및농약	101.3	101.3	101.3	101.3	101.3	101.3	0.0	0.0
농업용 기계	111.5	114.4	114.6	114.6	115.6	115.6	1.0	0.0

자료: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 채상현 연구원(csh0331@krei.re.kr)이 작성하였음.

## 1.2. 소비자물가지수

- 2013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농축수산물은 전분기 대비 5.3% 하락함.
- 농산물의 경우, 곡물, 채소, 과일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8.6% 하락하였고, 축산물은 전분기 대비 1.5% 하락함.

【 농업분야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등락률(%)	
	3/4	4/4	1/4	2/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소비자물가	106.4	106.7	107.4	107.3	107.9	107.8	1.1	0.0
농축수산물	113.3	112.3	114.6	111.3	113.5	107.4	-4.3	-5.3
농산물	118.4	119.7	124.5	117.1	117.4	107.3	-10.4	-8.6
곡물	118.2	122.8	126.1	127.1	127.7	127.6	3.9	-0.1
채소	103.1	106.1	118.4	99.4	102.5	86.6	-18.4	-15.6
과일	124.6	122.8	123.3	124.0	121.3	112.9	-8.1	-7.0
기타농산물	168.9	164.3	160.8	150.2	142.7	134.6	-18.1	-5.7
축산물	104.4	98.9	95.7	98.4	105.8	104.2	5.3	-1.5
수산물	110.8	110.7	112.8	114.6	112.4	111.9	1.1	-0.5

자료: 통계청

## 1.3.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 2013년 4/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쌀, 콩(백태) 등의 곡류와 배추, 무, 고추(화건) 등의 채소류, 배(신고) 등의 과일류는 하락하여 약세를 보인 반면, 마늘(난지), 양파, 사과(후지) 등의 품목은 상승함.

【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10년=100) 】

	2012		2013				등락률(%)	
	3/4	4/4	1/4	2/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25.5	129.9	131.9	132.6	133.0	131.2	1.0	-1.3
콩(백태)	114.4	121.3	128.8	129.6	129.1	107.0	-11.8	-17.1
배추	93.4	90.0	115.9	73.7	101.1	51.0	-43.3	-49.6
무	76.5	90.9	60.1	77.5	82.1	54.3	-40.3	-33.9
고추(화건)	193.8	162.2	141.9	128.7	115.3	106.3	-34.5	-7.8
마늘(난지)	90.7	90.4	88.8	81.7	59.8	62.8	-30.6	5.0
양파	109.8	138.6	193.8	191.0	94.7	105.4	-24.0	11.3
사과(후지)	181.6	113.1	121.2	118.7	114.8	119.8	5.9	4.4
배(신고)	165.6	186.4	199.2	190.1	150.9	109.0	-41.5	-27.7
느타리	128.5	98.7	104.4	101.3	122.2	104.8	6.2	-14.3
참깨	115.3	114.3	114.4	115.5	114.4	103.6	-9.3	-9.4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1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3년 4/4분기 곡물 가격 중 쌀은 전분기보다 1.3%, 콩(백태)은 전분기보다 17.1% 하락함.
- 2013년 4/4분기 채소 가격은 마늘(난지), 양파를 제외한 고추(화건), 배추, 무 등의 품목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3년 4/4분기 과일 가격은 사과(후지)는 전분기보다 4.4% 상승한 반면, 배(신고)의 가격은 전분기보다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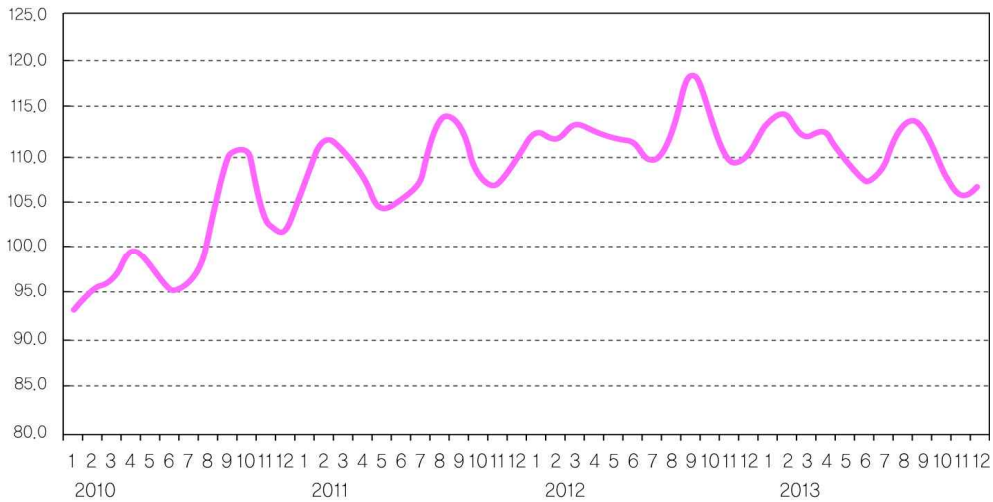
1.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sup>3)</sup>

- 2013년 4/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7.0으로 전년 동기대비 3.9%, 전분기 대비 4.1% 하락함.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 쌀, 쇠고기(국산), 오이, 토마토, 양파 등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돼지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음.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



【 주요 농산물 생활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등락률(%)	
	3/4	4/4	1/4	2/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20.1	125.5	127.7	128.5	128.8	129.2	3.0	0.3
쇠고기(국산)	89.1	90.4	89.3	87.1	89.2	91.0	0.7	2.1
돼지고기	117.3	99.0	92.4	99.9	115.0	106.2	7.0	-7.6
닭고기	102.7	101.8	104.4	104.1	109.8	109.2	7.3	-0.6
사과	137.1	138.7	136.9	139.3	139.4	124.8	-9.8	-10.5
배추	96.6	97.0	119.6	95.5	113.8	58.5	-39.7	-48.6
무	81.2	84.1	66.0	71.8	80.2	54.7	-34.9	-31.9
오이	94.3	97.2	152.2	87.4	96.2	100.1	3.3	4.0
토마토	82.2	117.5	113.8	90.2	93.9	101.0	-14.1	7.6
파	102.2	107.4	107.2	88.5	70.9	68.5	-36.4	-3.5
양파	104.9	118.2	162.1	195.2	114.0	116.0	-1.8	1.7
마늘	111.0	108.6	109.9	111.8	96.8	90.6	-16.6	-6.4

자료: 통계청

## 1.5.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

- 2013년 4/4분기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01.3으로 전년 동기대비 10.7%, 전분기대비 9.1% 하락함.
- 신선채소는 양파, 오이, 토마토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16.2% 하락함.
- 신선과실은 사과, 배, 바나나 등의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7.0% 하락함.

【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등락률(%)	
	3/4	4/4	1/4	2/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신선식품	112.8	113.3	118.5	111.7	111.4	101.3	-10.7	-9.1
신선어개	109.7	108.8	110.8	112.7	109.4	108.6	-0.3	-0.8
신선채소	102.4	105.9	119.3	98.2	102.9	86.2	-18.6	-16.2
배추	96.7	97.0	119.6	95.5	113.8	58.5	-39.7	-48.6
무	81.3	84.0	66.0	71.8	80.2	54.7	-34.9	-31.9
버섯	107.7	106.7	105.8	102.9	110.5	109.9	3.0	-0.5
오이	94.2	96.9	152.2	87.4	96.2	100.1	3.3	4.0
풋고추	83.2	104.6	143.8	88.8	90.7	76.0	-27.3	-16.2
호박	87.8	101.5	118.6	71.4	85.2	75.6	-25.5	-11.2
양파	105.0	118.1	162.1	195.2	114.0	116.0	-1.8	1.7
신선과실	124.6	122.8	123.3	124.0	121.3	112.9	-8.1	-7.0
사과	137.1	138.4	136.9	139.3	139.4	124.8	-9.8	-10.5
배	130.1	154.5	169.1	172.6	168.8	119.8	-22.5	-29.0
오렌지	87.8	87.8	87.7	79.6	80.3	80.3	-8.6	0.0
바나나	97.8	89.4	111.2	143.2	123.3	109.9	22.9	-10.9
기타신선	110.7	108.3	109.6	112.0	98.6	90.0	-16.9	-8.7

자료: 통계청

##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3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504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9% 감소하였고, 전분기대비 12.8%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분기대비 10.8% 감소한 856천 명이었고, 여성은 15.2% 감소한 648천 명임.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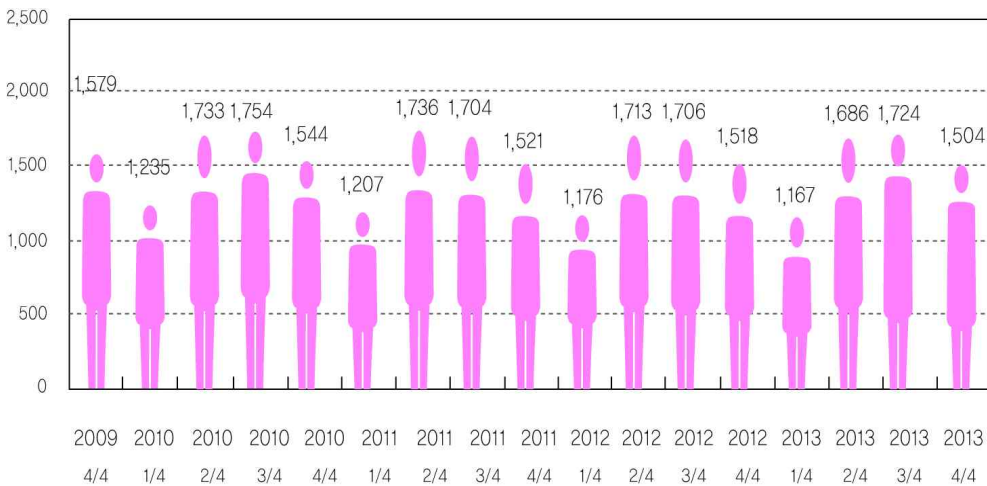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12		2013				증감률	
		3/4	4/4	1/4	2/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체	24,989	24,804	24,184	25,326	25,410	25,346	2.2	-0.3
	농림어업	1,706	1,518	1,167	1,686	1,724	1,504	-0.9	-12.8
	남성	957	863	733	932	960	856	-0.8	-10.8
	여성	748	655	434	754	764	648	-1.1	-15.2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단위: 천명



- 2013년 4/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는 1~17시간 취업자수가 전분기 대비 43.1%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수와 18~35시간 취업자수는 전분기 대비 감소하여 전체적인 취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일시 휴직자는 19천 명으로 전분기대비 11.8% 증가하였고, 주당 평균시간은 37.6시간으로 전분기대비 6.0% 감소함.

【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2		2013				증감률	
	3/4	4/4	1/4	2/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전체	1,706	1,518	1,167	1,686	1,724	1,504	-0.9	-12.8
1~17시간	118	157	276	99	109	156	-0.6	43.1
18~35시간	407	356	362	348	393	369	3.7	-6.1
36시간 이상	1,161	982	508	1,224	1,205	959	-2.3	-20.4
일시 휴직	20	24	21	14	17	19	-20.8	11.8
주당 평균시간	39.2	37.8	29.4	41.2	40.0	37.6	-0.5	-6.0

자료: 통계청

### 3. 농축수산물 수출입

#### 3.1. 수출 동향

- 2013년 1~12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엔저 상황에도 불구하고, 딸기, 버섯 등 신선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우유, 조제분유 등 유제품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5,725백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항공물류를 통한 원거리 수출 확대와 다양한 마케팅 추진 노력으로 딸기, 버섯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채소류, 김치, 화훼류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0.9%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은 돼지고기와 가금육류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함.
- 수산물 수출액은 멸치, 가자미 등의 어류와 새우 등 갑각류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함.

【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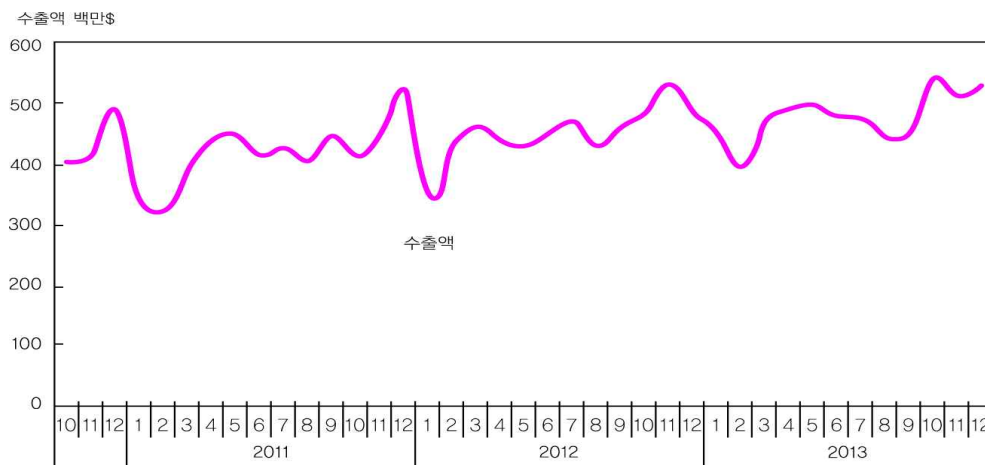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206	5,645	3,336	5,725	4.1	1.4
농 산 물	2,338	4,785	2,567	4,741	9.8	-0.9
축 산 물	95	395	127	435	32.9	10.2
임 산 물	773	465	643	548	-16.8	17.9
수 산 물	708	2,361	688	2,152	-2.9	-8.9
합 계	3,914	8,006	4,024	7,877	2.8	-1.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임산물 수출액은 감소한 반면 축산물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8.7%, 전월 대비 3.7%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2. 수입 동향

- 2013년 1~12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축산물이 감소한 반면, 농산물과 임산물의 증가로 총 34,187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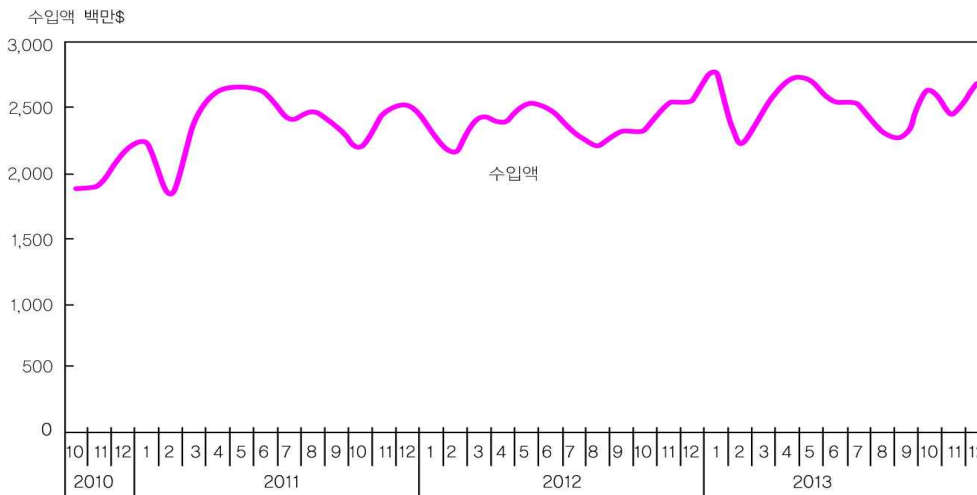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6,537	29,447	47,163	30,294	1.3	2.9
농 산 물	31,591	18,717	31,780	19,101	0.6	2.1
축 산 물	1,286	4,720	1,209	4,688	-6.0	-0.7
임 산 물	13,660	6,010	14,174	6,505	3.8	8.2
수 산 물	4,829	3,975	5,387	3,894	11.6	-2.1
합 계	51,366	33,422	52,549	34,187	2.3	2.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임산물은 감소한 반면, 농산물과 축산물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5.1%, 전월 대비 9.4%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3. 국가별 수출입 동향

#### 3.3.1.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13년 1~12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1,31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함. 이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조제분유와 생우유의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 유제품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인삼 등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731,626	906,386	757,796	947,789	3.6	4.6
농 산 물	351,708	654,288	382,706	675,270	8.8	3.2
축 산 물	23,524	130,333	32,302	145,109	37.3	11.3
임 산 물	356,394	121,765	342,789	127,410	-3.8	4.6
수 산 물	126,214	372,131	143,181	370,446	13.4	-0.4
합 계	857,840	1,278,517	900,978	1,318,235	5.0	3.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곡류와 버섯류 품목의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과실류는 22.3%, 채소류는 5.2%, 화훼류는 21.6%, 낙농품은 55.0%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2,128	2,345	1,891	2,108	-11.1	-10.1
과실류	25,651	42,002	30,017	51,366	17.0	22.3
채소류	1,492	11,318	1,639	11,904	9.8	5.2
화훼류	1,239	9,036	1,587	10,992	28.0	21.6
버섯류	413	620	188	321	-54.5	-48.2
낙농품	6,716	46,104	11,594	71,467	72.6	55.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1~12월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6,168,273	4,213,828	6,793,784	4,708,968	10.1	11.8
농 산 물	3,053,650	2,363,694	3,694,447	2,743,281	21.0	16.1
축 산 물	25,171	138,237	25,752	141,555	2.3	2.4
임 산 물	3,089,452	1,711,896	3,073,585	1,824,132	-0.5	6.6
수 산 물	819,628	1,082,767	907,951	1,025,732	10.8	-5.3
합 계	6,987,901	5,296,595	7,701,735	5,734,700	10.2	8.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2.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3년 1~12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2억 8,626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함. 이는 농식품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이 엔저 현상에 따른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일본 내 수요 감소로 화훼류 및 라면, 막걸리 등 가공식품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임.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809,498	1,407,633	888,814	1,286,267	9.8	-8.6
곡류	11,880	11,661	9,711	7,739	-18.3	-33.6
과실류	11,340	31,907	9,252	23,269	-18.4	-27.1
채소류	53,133	212,035	50,738	184,702	-4.5	-12.9
화훼류	6,729	70,366	5,819	44,645	-13.5	-36.6
버섯류	711	2,320	574	1,912	-19.3	-17.6
낙농품	3,456	14,312	2,975	13,633	-13.9	-4.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과실류는 사과, 포도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7.1% 감소함.
- 채소류는 배추, 김치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12.9% 감소함.
- 화훼류는 장미, 튜립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36.6% 감소함.

- 2013년 1~12월 일본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수산물	356,451	488,073	546,549	458,968	53.3	-6.0
농 산 물	75,719	356,304	74,040	290,593	-2.2	-18.4
축 산 물	25,192	47,210	38,438	52,511	52.6	11.2
임 산 물	255,540	84,558	434,071	115,864	69.9	37.0
수 산 물	39,824	116,004	53,386	106,223	34.0	-8.4
합 계	396,275	604,077	599,935	565,191	51.4	-6.4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3. 대미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13년 1~12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5억 2,269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함. 이는 곡류와 낙농품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채소류, 화훼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채소류는 호박, 딸기, 토마토 등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2.4% 증가함.
  - 과실류는 유자, 감귤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함.
  - 버섯류는 양송이, 새송이버섯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88,417	473,065	202,425	522,698	7.4	10.5
곡류	5,842	6,209	5,501	5,786	-5.8	-6.8
과실류	14,569	36,598	16,846	37,166	15.6	1.6
채소류	4,008	22,422	4,946	27,456	23.4	22.4
화훼류	169	1,835	150	2,049	-11.7	11.6
버섯류	3,434	6,475	3,789	7,398	10.3	14.2
낙농품	4,624	5,017	4,611	4,911	-0.3	-2.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1~12월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8.2% 감소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971,322	6,533,202	6,395,278	5,941,300	-35.9	-9.1
농 산 물	7,967,868	4,330,170	4,451,938	3,624,381	-44.1	-16.3
축 산 물	410,779	1,410,637	391,522	1,470,912	-4.7	4.3
임 산 물	1,592,675	792,394	1,551,818	846,006	-2.6	6.8
수 산 물	55,179	177,387	63,578	221,405	15.2	24.8
합 계	10,026,501	6,710,589	6,458,856	6,162,704	-35.6	-8.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3.4.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3년 1~12월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유럽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한 29,774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3%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함.
  -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4.6% 감소함.

#### 【 대EU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1,791	312,008	165,533	297,746	35.9	-4.6
농 산 물	117,110	285,043	160,485	275,552	37.0	-3.3
축 산 물	481	13,770	575	13,569	19.5	-1.5
임 산 물	4,200	13,195	4,473	8,625	6.5	-34.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1~12월 EU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축산물은 감소한 반면 농산물과 임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1.7% 증가한 33억 3,137만 달러임.

#### 【 대EU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2. 1~12		2013. 1~12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822,123	2,877,055	2,691,201	3,217,597	47.7	11.8
농 산 물	1,000,102	1,532,358	1,890,116	1,869,520	89.0	22.0
축 산 물	253,304	1,008,005	216,538	937,245	-14.5	-7.0
임 산 물	568,717	336,692	584,547	410,831	2.8	22.0
수 산 물	19,399	105,328	22,664	113,777	16.8	8.0
합 계	1,841,522	2,982,383	2,713,864	3,331,374	47.4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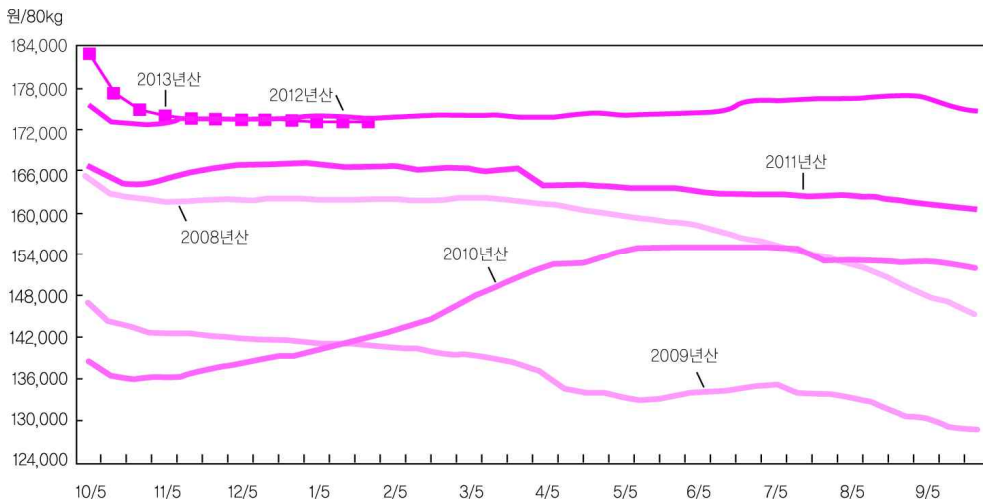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 1. 곡물<sup>4)</sup>

##### 1.1. 쌀

【 산지 쌀 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 ● 2013년 4/4분기 동향

- 정부와 산지유통업체들의 2013년산 벼 매입실적은 12월 29일 기준 21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5% 증가(17만 1천 톤)하였으며, 이는 매입 계획량의 98% 수준임.
- 2013년산 벼 매입량이 늘어난 것은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확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지면서 단경기에 재고가 부족했던 산지유통업체들이 수확 초기에 벼 매입량을 늘렸기 때문임. 한편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작년보다 인상되었으며, 10월까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매입가격도 작년보다 높았음.
-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양곡연도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은 80kg 기준 17만 5,279원으로 전년 대비 0.9% 상승함. 이는 단경기 구곡 가격 상승분 반영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종진 부연구위원(ykim@krei.re.kr), 송준호(jhseung@krei.re.kr), 김대석(sorihunt@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동주(djlee@krei.re.kr), 김태이(fishmail@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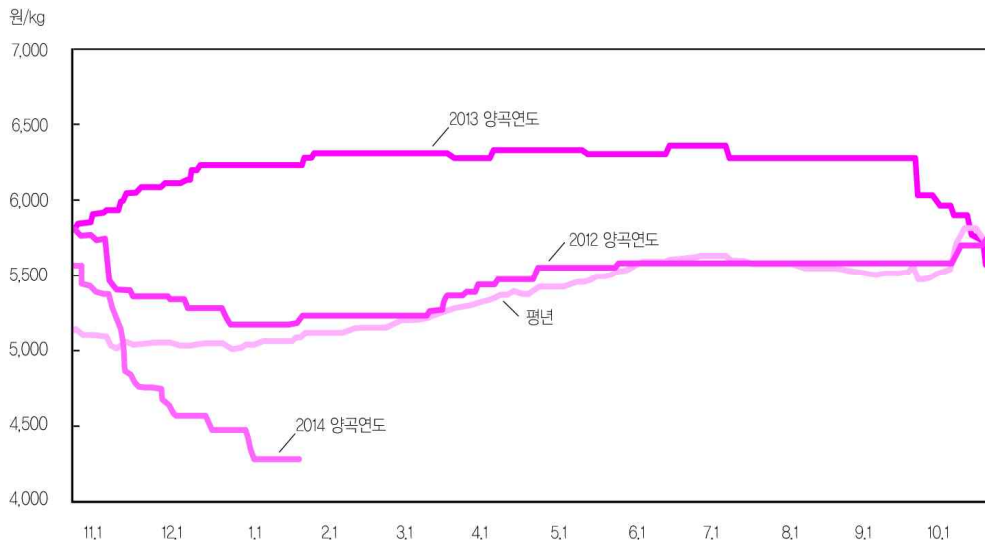
등 수급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수확 초기 원료곡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수확기(10~12월)에 전년 대비 0.9% 상승하였던 산지 쌀값은 11월 이후 원료곡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12월부터 작년보다 낮게 유지됨. 2014년 1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80kg 기준 17만 2,992원으로 전년 대비 0.6% 하락함.
- 2014양곡연도 쌀 생산량 증가로 총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4분기 산지 쌀값은 수확기대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의 2014년 벼 재배의향 면적은 83만 1천 ha로 작년보다 0.2% 감소함. 금년 재배의향 면적 감소폭은 전년(1.9%)과 최근 10년간(2.0%) 평균 감소율보다 낮은 수준임.
- 재배의향 면적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2013년산 수확기 쌀 가격이 17만 5,000원 /80kg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었고, 목표가격 인상으로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1.2. 콩

【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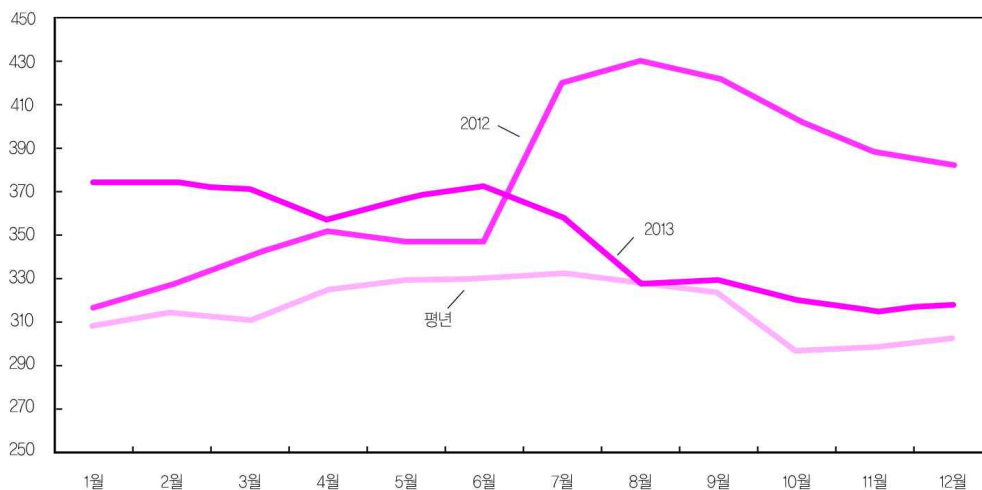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 2013년산 작황 호조로 콩 생산량이 증가하고 두부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됨에 따라 국산콩을 소비하던 대기업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국산콩 가격은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된 11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2013년 12월 평균 국산콩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5.4%. 평년 대비 8.9% 감소한 4,594원/kg으로 전월 대비는 11.5% 하락하였음.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3년산 콩 생산량증가와 대기업의 국산콩 소비감소, 정부공공 비축물량 매입 등으로 향후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국산콩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콩 재배의향면적도 전년 대비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발콩은 전년 대비 6.3% 감소가 예상되며, 논콩 면적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폐지와 쌀 목표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1.3% 감소할 것으로 전망

### 1.3. 국제곡물

【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



주 1.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쌀은 시카고상품거래소의 Rough rice 선물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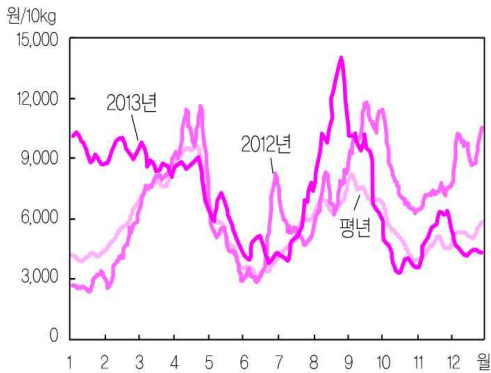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

- 2013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세계 주요곡물 생산량 및 기말재고량 증가전망으로 전분기 대비 6.2% 하락
  - 옥수수, 콩 선물가격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분기 대비 각각 16.2%, 7.2% 감소하였음.
  - 밀 선물가격은 미국 재고량 감소와 러시아 생산량 감소 우려로 전분기 대비 0.6% 상승하였음.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한 24억 3,256만톤, 기말재고율은 2.6%p 상승한 26.0%로 예상되어 곡물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세계 밀 생산량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캐나다, 러시아, 호주, 우크라이나 등)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콩 생산량은 미국 및 남미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상반기 국제 곡물가격은 2013년 9월 이후에 파종된 남반구(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작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호주의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4년 5월부터 출하될 2013년 미국 겨울밀 파종면적은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량 증가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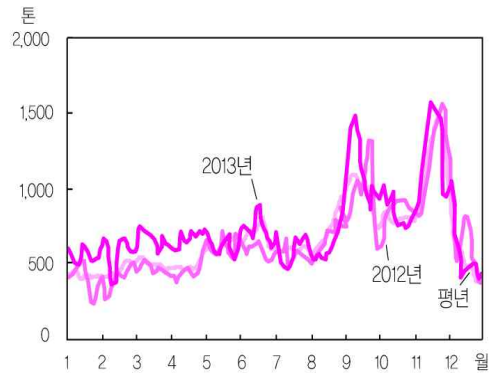
## 2. 엽근채소<sup>5)</sup>

### 2.1. 배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 】



【 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 2013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재배면적 및 단수가 증가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43%, 6% 낮았음.
- 전년도 가을배추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13% 증가하였고, 기상여건이 좋아 단수가 전년보다 5% 증가하여 생산량은 18% 증가하였음. 따라서 가을배추 출하량 증가로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세를 보였음.

\* (2013) 4,640원/10kg, (2012) 8,090원, (평년) 4,950원

####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배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2%, 12% 많을 것으로 전망
- \*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8% 증가한 5,298ha, 단수는 작황이 크게 나빴던 작년보다 11% 증가한 6,575kg/10a으로 추정되어 금년 겨울배추 생산량은 34만 8천 톤 전망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최병욱 연구위원(bochoi@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이금호(leekumho@krei.re.kr), 공민지(kmj@krei.re.kr), 권희민(romeo@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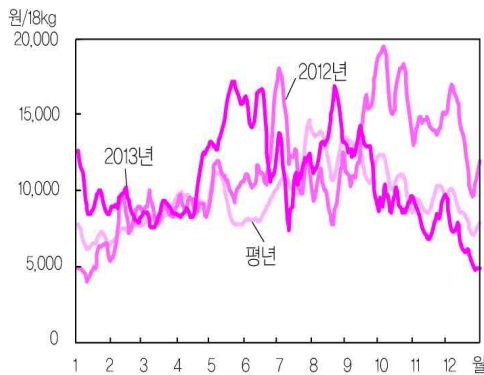
- 1/4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 1/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겨울배추 산지 및 저장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크게 높았던 전년(9,200원/10kg)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봄배추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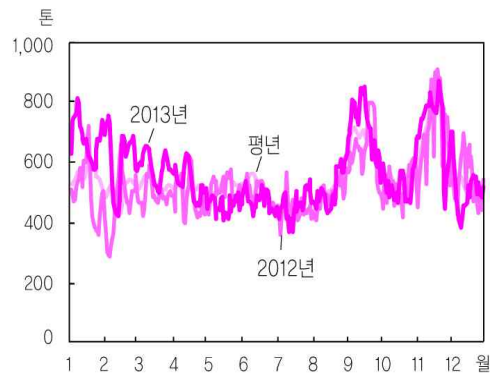
-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낮은 시세에 따른 타 작목 전환 등으로 전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조사
- \*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 봄배추가 작년보다 각각 8%, 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아직 봄배추 재배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많고, 겨울배추 시세 변화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성 존재

## 2.2. 무

【 무 도매가격 동향 】



【 무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증가하였고, 평년보다는 7% 감소하였음. 단수는 파종기와 생육기 적절한 기온과 강우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11% 증가하였음.
- 따라서 4/4분기 무 도매가격은 태풍 피해가 없고, 기상이 좋아 가을무 출하량

이 크게 증가하면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46%, 16% 하락하였음.

\* (2013) 8,020원/18kg, (2012) 14,968원, (평년) 9,514원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월동무 생산량은 기상이 좋아 크게 증가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한 4,575ha, 단수는 작년보다 12% 증가한 6,945kg/10a으로 추정되어 월동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9%, 평년보다 34% 증가 전망

- 1/4분기 무 도매가격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

\* 1/4분기 무 도매가격은 월동무의 본격적인 출하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전망

● 2014년 봄무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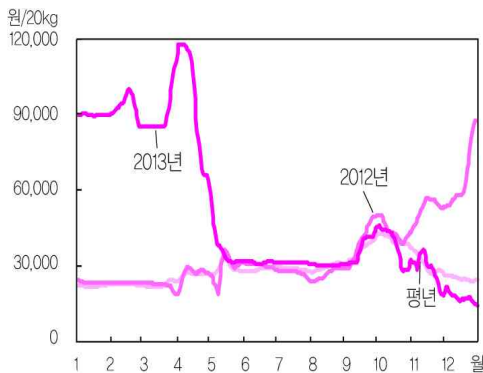
-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 봄무가 작년보다 각각 7%, 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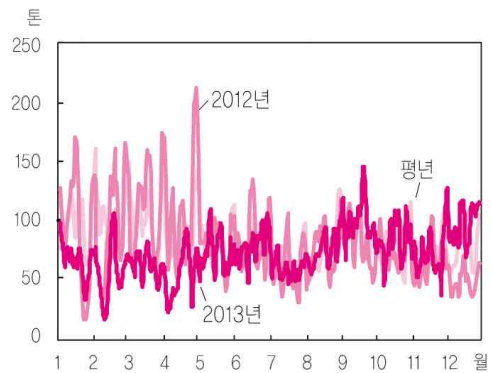
\* 그러나 아직 봄무 재배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향후 변동 가능성 존재

### 2.3. 당 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 】



【 국내산당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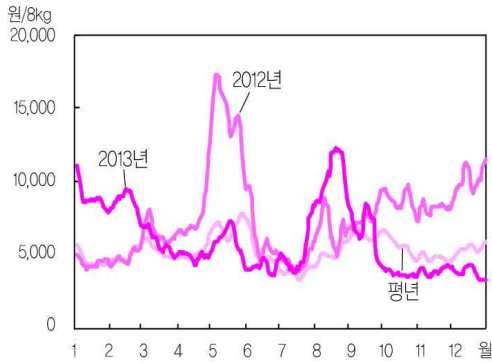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도매가격은 가을당근과 겨울당근 생산량이 많아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8%, 12% 낮은 수준임. 12월 이후 겨울당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
  - \* (2013년) 27,806원/20kg, (2012년) 53,143원, (평년) 31,559원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당근 생산량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많으나, 평년보다는 15% 내외 감소할 전망
  - \*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1,499ha, 단수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3,686kg/10a으로 추정
  - 1/4분기 당근 도매가격 평년보다 약간 낮을 전망
  - \* 1/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겨울당근 생산량 및 저장량이 많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3월 이후 저장 당근이 출하되면서 가격은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봄당근 생산 전망
  - 시설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하나, 노지봄당근은 전년보다 4% 감소하여 금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2.4. 양배추

- 2013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도매가격은 준고랭지 2기작 양배추와 가을양배추 생산량이 많아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8%, 28% 낮은 수준임.
  - \* (2013년) 3,814원/8kg, (2012년) 9,001원, (평년) 5,296원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



【 양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3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7% 13% 많아 가격은 약세를 지속할 전망
-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3,218ha, 단수는 전년보다 2% 감소한 3,464kg/10a으로 추정

● 2014년 봄양배추 생산 전망

- 2014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가을·겨울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정식기 가격이 낮아 전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2.5. 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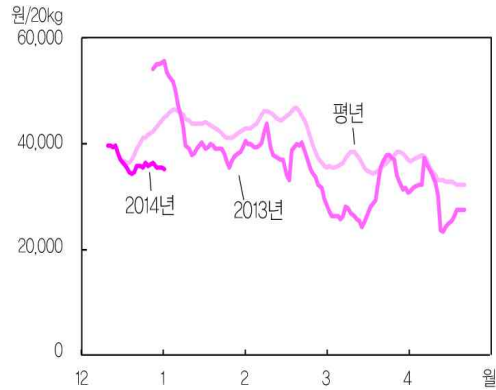
● 2013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내륙지역 가을감자와 저장감자의 출하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22%, 28% 낮았음.
- \* 내륙지역 가을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했으나 기상이 좋아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4% 증가하였고, 저장감자 출하량도 15% 내외 많아 가격이 전년보다 약세를 보였음.

【 수미 도매가격 추이 】



【 대지 도매가격 추이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제주도 가을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했으나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 9% 많은 3만 2천 톤으로 전망
- \* 제주도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작년 초 대지감자 가격이 낮아 타 작물로 작목을 전환하여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4%, 9% 감소한 1,533ha이며, 단수는 생육기 기상 이 양호하여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 22% 증가한 2,068kg/10a로 전망됨.
- 1/4분기 수미, 대지감자 도매가격은 저장감자와 제주도 가을감자 출하량 증가로 전년이나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봄감자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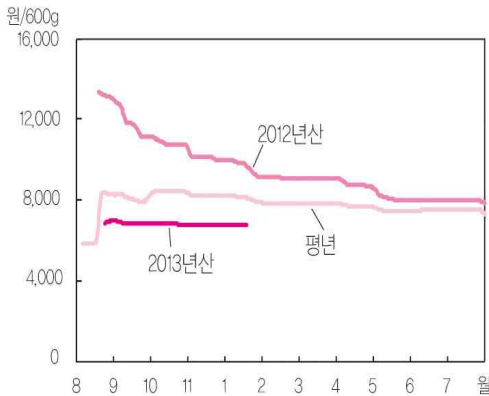
-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감자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13% 감소 전망
- \*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봄감자가 전년보다 각각 10%, 1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향후 시세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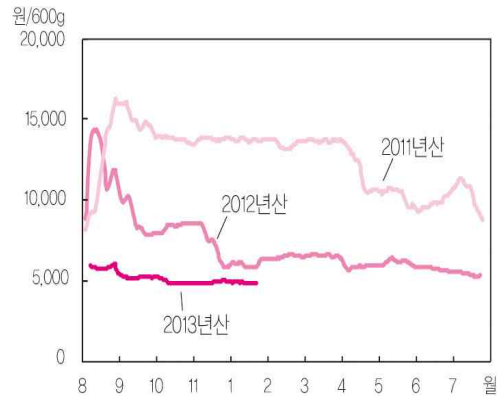
### 3. 양념채소<sup>6)</sup>

#### 3.1. 건고추

【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



주 1: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2: 평년 도매가격은 2007년 8월~2012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도매가격은 햇 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 ● 2013년 4/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4/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4% 낮은 6,83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산지가격은 36% 낮은 4,960원 수준이었음.
- \* 도매가격: (금년) 6,830원/600g → (전년) 10,417 → (평년) 8,335
- \* 산지가격: (금년) 4,960원/600g → (전년) 7,710
- 2013년산 고추 정식기(4~5월) 이후 기상 여건 양호로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월 재고량도 많았음.
- 2013년산 재배면적은 2012년산보다 0.2% 감소한 4만 5,360ha로 확정 발표됨 (통계청, 8.27).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국승용 연구위원(gouksy@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이성민(lsm199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3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12.6	2.3	-12.7	-2.3	4.7	9.2	-11.1	8.0	-0.2

자료: 통계청

- 11월 22일 통계청 조사결과, 2013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많은 11만 7,800톤으로 확정 발표됨.
- \* 정식기(4~5월) 이후 강우량, 일조시간 등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건고추 10a 당 수확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4%, 12% 증가한 260kg임.

【 2013년산 건고추 생산량 】

연산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2013	45,360	260	117.8
2012	45,459	229	104.1
평년	44,953	232	104.3
증감률 (%)	전년	-0.2	13.5
	평년	0.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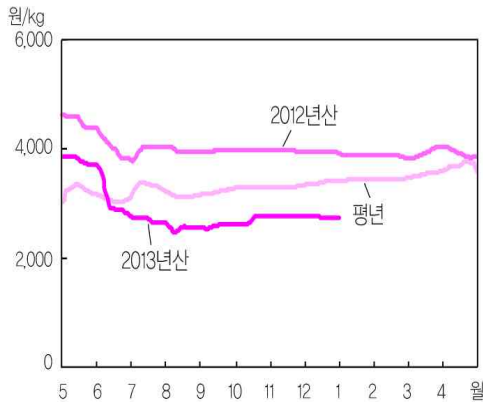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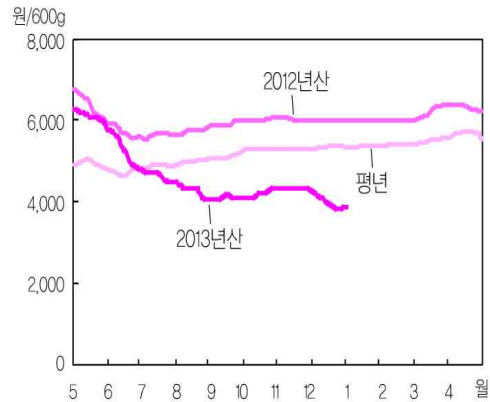
- 2013년산 생산량 증가와 국내산 이월재고량이 증가하여 2014년 1/4분기 국내산 공급량은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수요량은 가정용 건고추의 대부분은 수확기와 김장철을 전후하여 구입이 완료되어 국내산 건고추의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급식업체 등 대규모 수요처도 냉동고추나 기타소오스 등을 수입하는 것이 국내산 건고추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이들 업체가 급격하게 국내산 소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국내산 공급량이 많아 2014년 1/4분기 도매가격은 2013년 1/4분기(9,120원/600g)와 평년(7,880원)보다 낮을 것이며 2013년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3.2. 마늘

【 난지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깎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7년 5월~2012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2013년 4/4분기 동향

- 2013년산 마늘 저장량이 많아 4/4분기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5대 도매시장)은 전년, 평년보다 각각 31%, 18% 낮은 kg당 2,754원. 깎마늘 도매가격은 kg당 4,168원으로 전년보다 31%, 평년보다 22% 낮음.
- 김장 수요 증가로 난지형 마늘과 깎마늘 가격은 3/4분기보다 상승
  - \* 난지형: (금년) 2,754원/kg, (전년) 3,968원/kg, (평년) 3,341원/kg
  - \* 깎마늘: (금년) 4,168원/kg, (전년) 6,013원/kg, (평년) 5,312원/kg
- 4/4분기 마늘 수입량은 냉동마늘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
  - \* 마늘 수입량(신선마늘 환산): (금년) 13,872톤, (전년) 12,662톤, (평년) 18,956톤

####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 마늘 재고량 전년보다 25~30% 많고, 햇마늘 수확 전(1~4월)까지 마늘 수입량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2만 1천 톤 내외로 전망되어 마늘 공급과잉이 2014년 1/4분기까지 지속될 전망
- 마늘 공급량 증가로 2014년 1/4분기 마늘 가격은 전년(3,894원/kg), 평년(3,480원/kg) 대비 약세가 지속될 전망

● 2014년산 생산 전망

- 2013년산 마늘 가격 약세로 2014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26,076ha 전망
  - \* 품종별로 한지형 마늘이 12%, 난지형이 11% 감소하고, 난지형 마늘에서는 남도마늘 재배 감소폭이 대서마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됨.
- 2014년산 마늘 10a당 수확량은 전년보다 14%, 평년보다 5% 감소한 1,202kg 전망
  - \* 파종된 2014년산 마늘 초기 생육(11월 말)은 충청, 호남지역은 양호하나 영남은 강우로 인한 습해, 제주는 파종 직후 고온 피해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2014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 평년보다 각각 24%, 5% 적은 31만 3천 톤으로 전망됨. 이는 평년보다 1만 7천 톤이 적은 양이나 2013년산 마늘 정부 수매·비축량(10,584톤)과 농협 추가 격리물량(11,212톤)이 많아 평년과 비교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4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

단위: ha, kg/10a, 천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4	29,352	1,202	313
2013	26,076	1,405	412
평년	26,212	1,261	330
전년 대비	-11.2	-14.4	-24.0
평년 대비	-0.5	-4.7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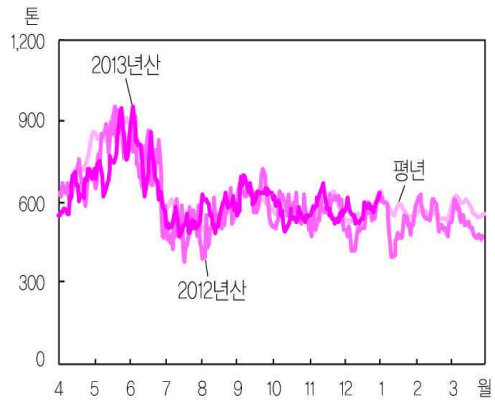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

### 3.3. 양 파

【 양파 도매가격 동향 】



【 양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8년 4월~2012년 3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 양파 4/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9% 낮은 880원임.  
 \* (금년) 880원/kg → (전년) 1,240원 → (평년) 900원
- 2013년산 생산량 증가로 저장량이 많아 출하기 이후 가격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으며, 11월 하순 이후 저장 물량의 출고가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 (10월) 930원/kg → (11월) 910원 → (12월) 810원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2월 말 현재 출고량을 제외한 재고량은 전년보다 18% 많은 31만 7천 톤이며 부패율을 적용한 조정재고량은 28만 1천 톤으로 전년보다 18% 많고 2011년보다 2% 적음.  
 \* 재고량 (금년) 32만 톤 → (전년) 27 → (2011년) 33
- 2014년 1/4분기 양파 가격은 전년(1,780원) 및 평년(1,100원)보다 낮고 전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됨.

【 2013년산 양파 재고량 추정 】

단위 : 천톤, %

연 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조정재고량	
2013	662	345	317	281	
2012	568	300	268	238	
2011	737	405	332	285	
증감률(%)	2012	16.6	15.1	18.3	17.9
	2011	-10.2	-14.9	-4.4	-1.5

주: 부패율은 2013년 11.3%, 2012년 11.0%, 2011년 13.9%를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2014년 1월 10일 저장업체 조사치

● 2014년산 재배 전망

- 2014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3년산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금년 양파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마늘, 배추 등에서 양파로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14년산은 2013년산보다 정식시기가 앞당겨지고 정식 이후 가을철 적절한 강우와 겨울철 온난한 기후로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평년 단수를 적용한 2014년산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4% 증가한 141만 6천톤으로 추정됨.

【 2014년산 양파 재배면적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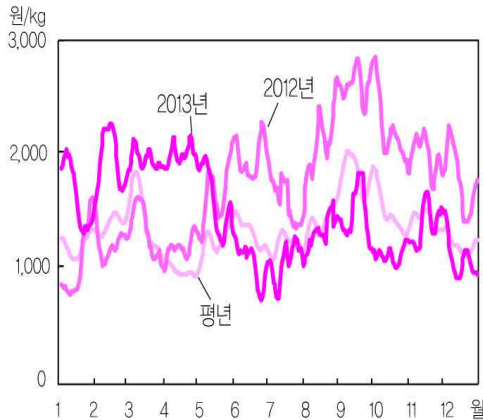
단위 : ha, kg/10a, 천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4	21,828	6,486	1,416
2013	20,036	6,458	1,294
평년	21,038	6,486	1,395
전년 대비	8.9	0.4	9.4
평년 대비	3.8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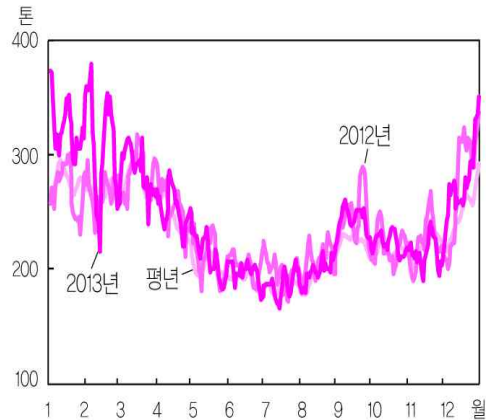
주: 201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 3.4. 대 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대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8년~2012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 2013년 4/4분기 동향

- 대파 4/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210원(중품 985원)으로 전년(2,008원)보다 40% 낮고 평년(1,390원)보다 13%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1,210원/kg → (전년) 2,008원 → (평년) 1,390원

- 고랭지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가을 이후에도 출하가 지속되었으며, 전년 가을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호남 지방의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가을 이후 대파 출하량이 증가함.

####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4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가격이 높아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작황도 좋아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대파 2014년 1/4분기 가격은 전년 동기(1,860원/kg)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가을 대파 가격이 하락하여 일부 물량이 출하되지 않고 2014년 봄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등 출하량 증가로 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것이며, 시장에

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진도 대파의 출하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3.5. 양념채소 중기선행관측

● 2014년도 1/4분기 특징

- 건고추의 가정용 소비는 미미하고, 가공업체·급식업체·음식점 등에서 일정 수준의 소비가 지속되는 시기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커다란 변동 요인이 없는 시기임.
- 3월 하순부터 조생 잎양파가 일부 출하되기는 하나 마늘과 양파는 저장 물량이 소비되는 시기임. 국내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 수입에 의한 시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2013년산의 경우 국내산 재고량이 비교적 많아 수입에 의한 시세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시기 수도권에 공급되는 대파의 대부분은 신안, 진도 등 전라도 서남해안에서 생산됨. 진도에서 생산된 대파는 연백부가 짧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짐.

● 2014년도 1/4분기 기상전망

-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으나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았던 겨울철 기상의 영향으로 겨울 작황이 비교적 좋을 것으로 전망됨.
- 장기간 한파가 지속되거나 폭설 등이 없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지속되어 양념 채소 전반의 생육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도 1/4분기 양념채소 전망

- 2013년산 생산량 증가와 대형수요처의 수입산 사용비중 증가 등으로 국산 이월재고량이 증가하여 국내산 공급량은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산 공급량이 많아 도매가격은 전년(9,120원/600g)과 평년(7,880원)보다 낮을 것이며, 2013년도 말 도매가격(6,80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산 재고량이 전년보다 많아 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산 마늘 수확기인 6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 2013년산 마늘이 유통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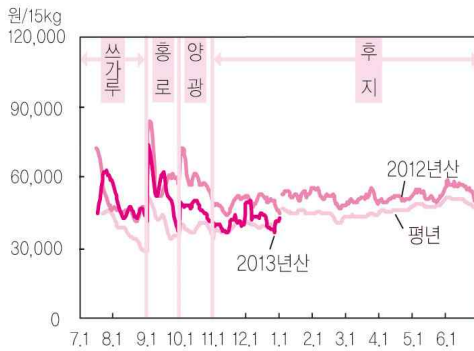


- 2014년산은 2013년산보다 정식시기가 앞당겨지고 정식 이후 가을철 적절한 강우와 겨울철 온난한 기후로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2013년산 재고량이 전년보다 많고 2014년산 재배면적도 증가해 양과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대파는 겨울대파 출하면적이 전년 대비 6~8% 증가하고, 단수도 8~14% 증가하여 출하량은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4. 과일<sup>7)</sup>

### 4.1. 사과

【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사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사과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 상자에 전년보다 17% 낮은 4만 3천원이었음. 이는 사과 반입량이 전년보다 49% 많았고, 배 등의 대체과일 반입량도 많았기 때문임.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사과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에 5만 5천원으로 전년과 비슷하였음. 이는 설(1월 31일)이 전년보다 10일 빨라 1월 출하가 증가하였지만, 상품(上品)과 비율이 낮았기 때문임.
- 2월 이후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12%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2014년 재배면적 전망

- 2014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3만 ha 수준으로 조사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되었음. 품종별 재배면적은 일반후지가 전년보다 2%(270ha) 감소하지만 착색  
계후지가 4%(290ha)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홍로와 감홍 재배면적은 전  
년보다 각각 2%, 6% 증가하고, 후지조숙계·쓰가루·양광은 각각 2~4%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 사과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3년	8,847	21,602	30,449
2014년	8,794	21,580	30,374
증감률	-0.6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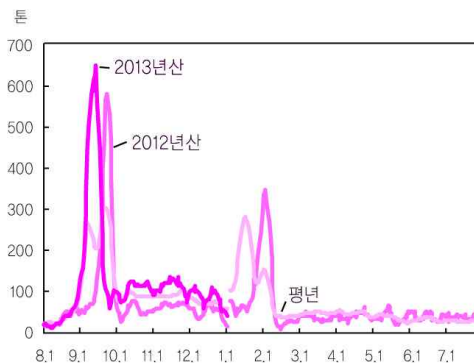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3년),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4.2. 배

【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배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kg당 1,818원으로 전년(2,793원)보다 35% 낮았음. 이는 배 생산량 증가로 10~12월 반입량이 전년 대비 86% 많았기 때문임.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신고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전년보다 120% 가량 많아 상품 15kg 상자에 3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33% 낮고, 평년과 비슷하였음. 이는 생산량이 많았고, 설이 전년보다 10일 빨라 1월 출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출하량이 전년보다 55%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월 이후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고,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재배면적 전망

- 배 재배면적 감소세는 2014년에도 이어질 전망. 2014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3,510ha로 예상됨. 성목면적은 올해보다 2% 줄고, 유목면적은 4% 감소할 전망

【 배 재배면적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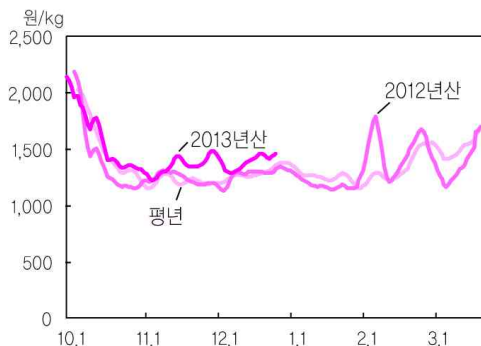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재배면적
2014년	974	12,536	13,510
2013년	1,013	12,727	13,740
증감률	-3.9	-1.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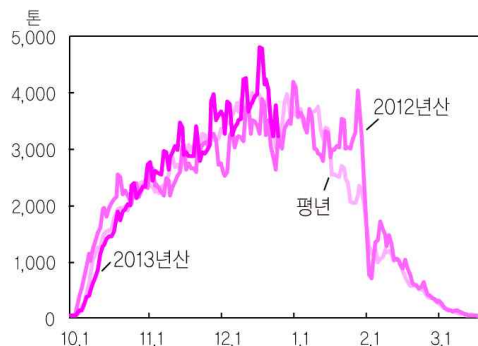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3년),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4.3. 감귤

【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 동향 】



【 노지온주 출하량 동향 】



주: 평년은 2008~12년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3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노지온주 출하량이 전년보다 19% 많았으나 품질이 좋아서 평균도매 가격은 kg당 1,373원으로 전년(1,245원)보다 10% 높았음.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하지만 품질이 좋아 평균도매가격은 kg당 1,553원으로 전년보다 28% 높았음.
  - 2~3월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적어 전년(kg당 1,332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재배면적 전망
  - 2014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2만 1천 ha 수준으로 예상됨. 품종별로는 노지온주가 전년보다 1% 줄지만, 월동온주와 만감류는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인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감귤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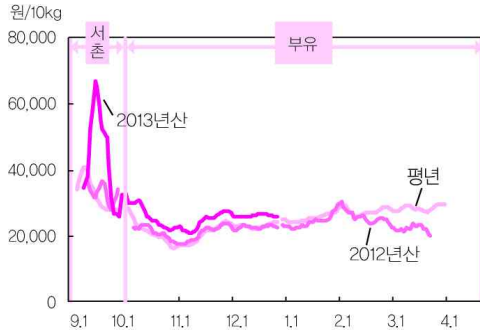
	유목면적	성목면적	재배면적
2014년	844	20,293	21,137
2013년	864	20,470	21,334
증감률	-2.3	-0.9	-0.9

자료: 통계청(2013년),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4.4. 단감

- 2013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부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kg당 1,901원으로 전년(1,611원)보다 18% 높았음. 이는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17% 적었기 때문임.

【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단감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부유 반입량이 전년보다 25% 적어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20% 높았음.
- 2월 이후 출하량이 전년보다 15%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재배면적 전망

- 2014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2,687ha로 예상됨.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2% 줄고 유목면적은 1%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는 경남, 전남지역이 작년보다 각각 2%, 3% 감소할 것으로 보임. 품종별로는 부유, 차랑, 서춘조생이 전년보다 각각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단감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재배면적
2014년	1,303	11,384	12,687
2013년	1,316	11,589	12,905
증감률	-1.0	-1.8	-1.7

자료: 통계청(2013년),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4.5. 포도

【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포도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 2013년 4/4분기 동향

- 10월 캠벨얼리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23% 낮았고, MBA 가격은 1만 8천원으로 30% 높았음. 캠벨얼리 반입량은 전년보다 많았지만, 동해로 인해 MBA는 반입량이 적었고 출하가 조기에 종료되었기 때문임. 11월에는 출하량이 적어 캠벨얼리 가격이 전년보다 15% 높았음.

### ● 2014년 재배면적 전망

- 2014년 포도 재배면적은 1만 6,800ha로 전년보다 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2% 줄지만, 유목면적은 4%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유목면적은 신규식재, 동해로 인한 고사주 대체, 노목의 대체식재 등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됨.
- 비가림·노지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줄지만, 시설포도는 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가온시설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지만, 무가온 시설은 신규시설 증가로 전년보다 2%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캠벨얼리가 전년보다 2% 감소하고, 수익성이 높은 거봉은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포도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재배면적
2014년	2,655	14,145	16,801
2013년	2,563	14,368	16,931
증감률	3.6	-1.6	-0.8

자료: 통계청(2013년),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포도 작형별 재배면적 증감률 전망 】**

단위: %

	비가림·노지	시설		
		가온	무가온	합계
증감률('14/'13)	-1.1	-0.6	1.8	1.0
면적비중	83.5	5.5	11.1	16.5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 증감률 전망 】**

단위: %

	캠벨얼리	거봉	MBA	델라웨어
증감률('14/'13)	-2.2	3.1	-0.8	-0.7
면적비중	68.7	16.3	7.2	0.8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4.6. 복숭아**

● 2014년 재배면적 전망

- 2014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1만 5천ha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성목면적은 동해로 전년보다 2% 줄고,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가 많아 전년보다 8%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음.
- 품종별로는 유모계 재배면적이 1만 2천 ha로 전년보다 2% 증가하고, 천도계는 3천 ha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숙기별로는 조생종과 중생종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3% 늘고, 만생종은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복숭아 재배면적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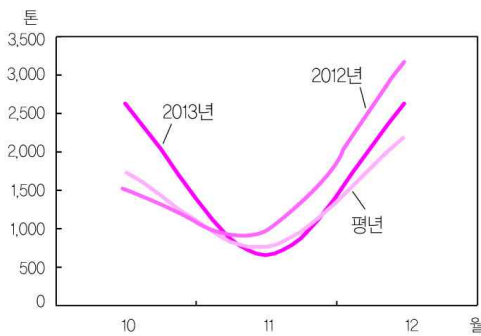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4년	5,409	9,465	14,874
2013년	5,004	9,659	14,663
증감률	8.1	-2.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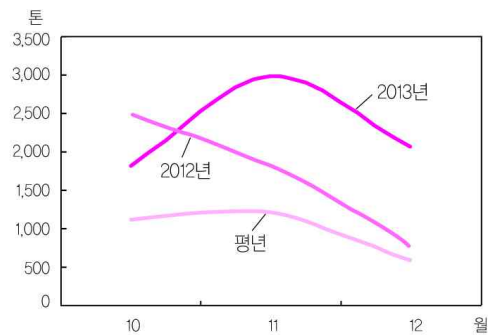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3년),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4.7. 수입과일 동향

### 【 오렌지 수입량 】



### 【 포도 수입량 】



주: 평년은 2008~12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3년 4/4분기 수입과일 동향
  - 4/4분기 과일 수입량은 12만 6천톤으로 전년보다 10% 많았음. 전체 수입단가는 1.08달러로 전년보다 20% 높았음.
- 오렌지·포도
  - 4/4분기 오렌지 수입량은 5,897톤으로 전년보다 5% 많았음. 수입단가는 전년보다 5% 높았고, 도매가격은 13% 낮아 수입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같은 기간 포도 수입량은 계절관세(18%: 10.16~4.30) 적용으로 전년보다 36% 많은 6,902톤이었음. 수입단가는 전년과 비슷하였고, 도매가격은 8%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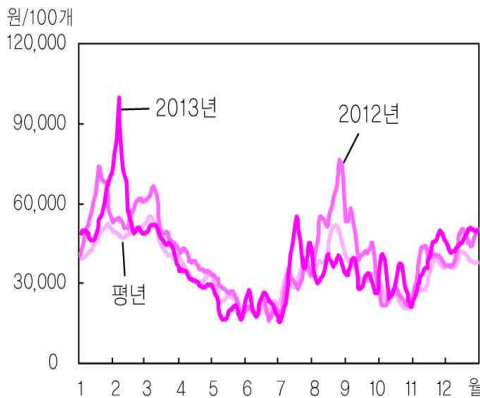
● 바나나·파인애플

- 4/4분기 바나나 수입량은 8만톤으로 전년보다 4% 많았음. 태풍 영향으로 높게 형성된 수입가격이 4/4분기까지 이어져 전년보다 수입단가가 33% 높았고, 도매가격도 34% 높았음.
- 동 기간 파인애플 수입량은 2만톤으로 전년보다 21% 많았음. 수입단가는 전년보다 6% 높았고, 도매가격은 6%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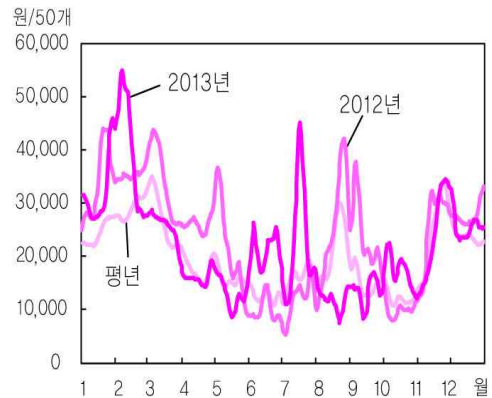
## 5. 과채8)

### 5.1. 오이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아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사농수산물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0월 3만 600원, 11월 3만 7,600원, 12월 4만 5,7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3만 8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20% 높았음.
- 4/4분기는 주산지인 충청지역에서 정식기 고온지속으로 인해 생육이 좋지 못해 반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이장은(leeje@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부연(sese85@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입량이 적었고, 작황부진으로 인한 조기 종료로 출하면적이 감소하였음. 10~12월 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1%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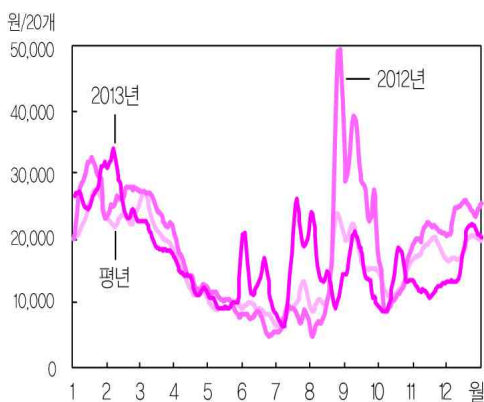
- 취청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10월 1만 7,400원, 11월 2만 3,800원, 12월 2만 5,8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2만 2,4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도 6% 높았음.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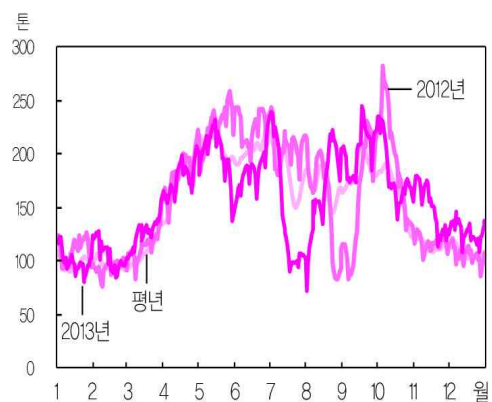
- 2014년 1월 백다가시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5만 6,600원으로 경북 상주지역의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 적어 작년보다 5% 높았음.
- 백다가시오이 출하는 명절시기에 앞서 동반 가격 상승과 2월 초 개학시기와 맞물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또한 12월 하순부터 1월 중순까지 지속된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임. 하지만 작황이 회복되면 2월 상순 이후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취청오이는 구례지역의 출하 증가로 가격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5.2. 애호박

【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애호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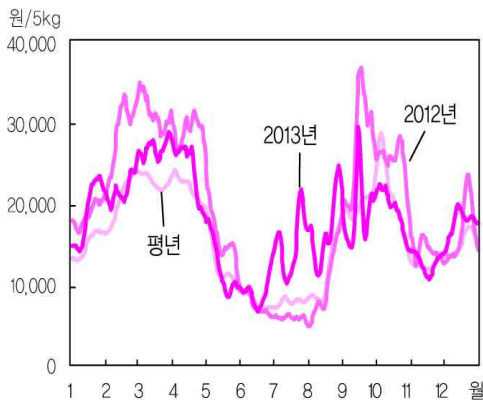
-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0월 1만 3천원, 11월 1만 2,100원, 12월 1만 7,9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1만 4,300원으로 작년 보다 25% 낮았으며 평년 동기보다는 13% 낮았음.
- 충청지역에서 애호박으로 품목전환이 늘었고, 경남 진주에서 출하시기가 앞당겨져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음. 10~11월 반입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3%, 16% 많았음.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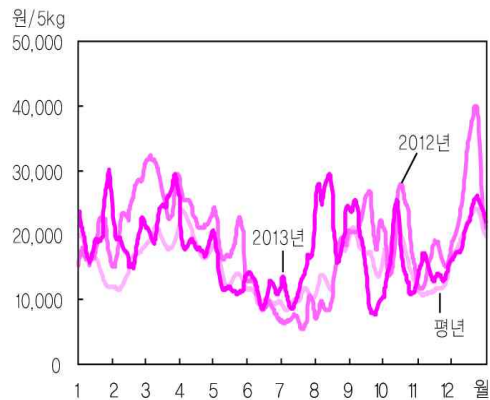
- 2014년 1월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2만 6,200원으로 작년보다 2% 낮았음. 1월 들어 겨울철 미세먼지에 의한 시설 하우스내 광량 부족으로 출하가 주춤하였으나 2월 들어서는 작황 회복으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명절 및 학교 개학으로 가격이 상승하다 2월 상순 이후부터는 출하량 증가로 인해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5.3. 토마토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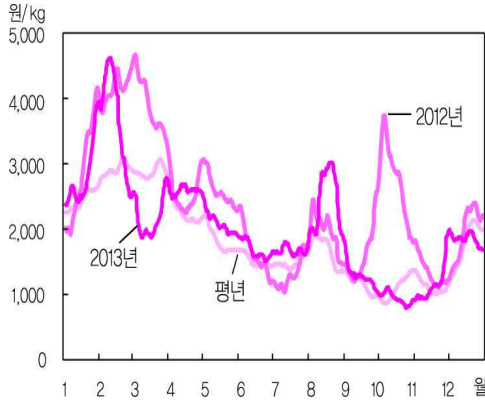
-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0월 1만 9,200원, 11월 1만 2,700원, 12월 1만 7,7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1만 6,5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 낮았고, 평년보다는 2% 높았음.
- 4/4분기는 주산지인 영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일사량, 일조시간 등 기상여건이 좋아 병해피해가 적었음. 따라서 10~12월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23%, 34% 많았음.
-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0월 1만 5,800원, 11월 1만 4,700원, 12월 2만 1,5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1만 7,3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 낮았고, 평년과는 비슷했음.
- 4/4분기는 충청·호남지역에서 신규 시설면적 증가와 더불어 기상여건 호조로 10~12월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5%, 27% 많았음.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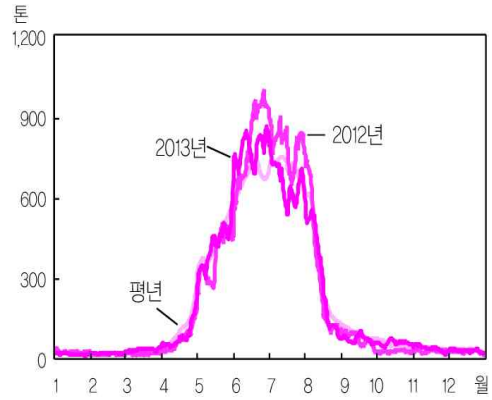
- 2014년 1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에 2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16% 높았음. 영남지역에서 전반적인 재배규모가 확대되었고, 기상여건도 좋아 병해 발병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특성 재배 주출하시기인 1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많았으며 2월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월에는 출하량이 증가하였지만, 작황호조로 품질이 좋았고,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은 상승하였음. 2~3월 가격은 전반적인 출하량 증가에 따른 하락세 전망
-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에 1만 8,400원으로 작년보다 14% 낮았음. 주산지인 충청지역에서 신규 하우스면적이 증가하였고, 겨울철 일사량이 많아 조기에 숙기가 이루어져 출하시기 앞당겨지는 등 전반적인 작황은 좋은 편임. 따라서 1월에 이어 2월에도 출하량은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5.4. 수박

【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수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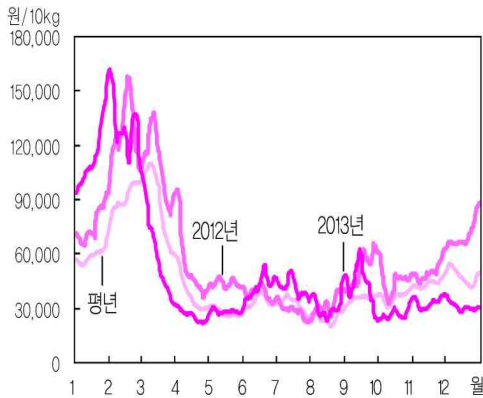
- 수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0월 937원, 11월 1,107원, 12월 1,842원 이었음. 수박 4/4분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295원으로 작년 동기와 평년 동기보다 각각 35%, 7% 낮았음.
- 4/4분기 반입량은 작년 대비 55% 많은 수준으로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증가와 맑은 날이 많아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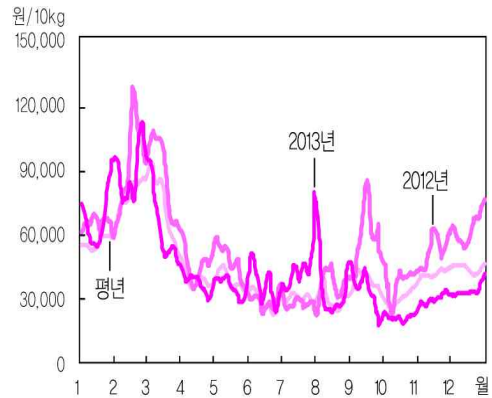
- 2014년 1월 수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2,680원으로 작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수박 재배면적 확대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2월 이후 가격도 낮을 것으로 전망됨.

## 5.5. 풋고추

【청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녹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 2013년 4/4분기 동향

- 청양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2만 6,100원, 11월 3만 2,600원, 12월 3만 2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2만 9,6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5%, 평년 동기보다는 30% 낮았음.
- 청양풋고추 10월, 11월 반입량은 영남지역에서의 출하가 앞당겨지고 호남지역에서의 작황이 좋아 작년 동기보다 각각 25%, 5% 많았음. 12월 반입량도 강원지역에서의 출하가 계속됨에 따라 작년 동기보다 22% 많았음.
- 녹광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2만 1,300원, 11월 2만 8,900원, 12월 3만 3,2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2만 7,8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5%, 평년 동기보다는 28% 낮았음.
- 4/4분기 녹광풋고추 반입량은 작년 태풍피해로 폐작되었던 호남지역의 재배면적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작년 동기보다 19% 많았음. 특히 11월에는 영·호남지역에서의 작황이 좋아 작년 동기보다 32% 많았음.

###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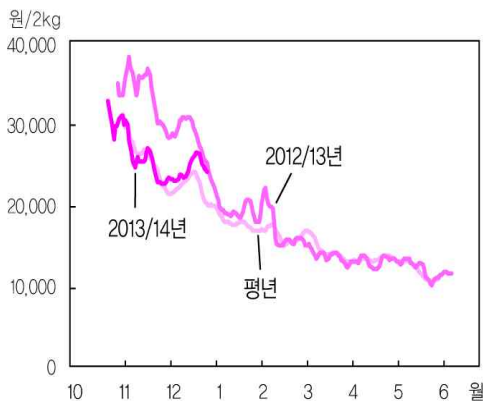
- 청양풋고추 1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8,6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7% 낮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32% 낮았음. 1월 녹광풋고추 평균도매

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7만 7,400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대비 각각 16%, 38%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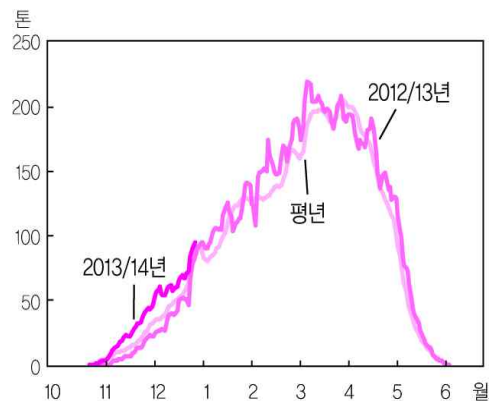
- 1월 청양꽃고추 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30%, 평년 동기보다는 23% 많았음. 이는 주산지인 영남지역에서의 정식면적이 2% 확대되었을 뿐만아니라 정식 이후 날씨가 양호하여 작황도 좋았기 때문임.
- 일반꽃고추 1월 반입량은 영남지역에서 오이맛고추, 룡그린 등의 신품종 재배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22%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녹광꽃고추 재배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평년과 비교한 1월 반입량은 5% 적었음.
- 1/4분기 청양꽃고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녹광꽃고추 출하면적은 영남지역에서 오이맛고추, 룡그린 등 타품종으로의 전환으로 작년보다 2%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5.6. 딸기

【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딸기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13년 4/4분기 동향

-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1월 2만 6,600원, 12월 2만 3,9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2만 5,300원으로 작년보다 20% 낮았으며 평년 동기보다는 6%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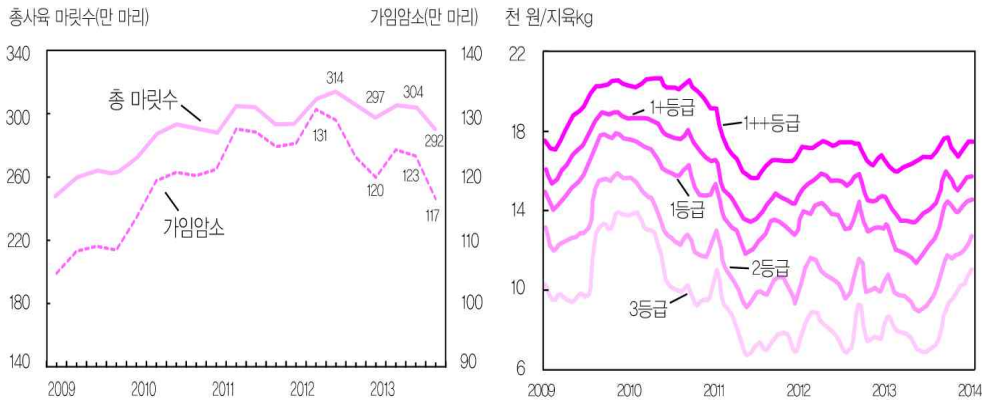
- 영남지역에서 조기수확을 목표로 정식을 앞당겨 출하면적이 증가하였고, 충남 논산에서도 지원사업으로 인해 재배규모가 늘었음. 11~12월 반입량은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72%, 33% 많았음.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 1월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2만 2,400원으로 작년보다 14% 높았음. 1월 들어 하우스내 일조량 부족으로 출하가 감소하였으나 2월 이후 작황 회복으로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월 이후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6. 축산<sup>9)</sup>

### 6.1. 한육우

【 한육우 사육 마리수 추이 】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3년 4/4분기 동향

- 도축이 증가하고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여 12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9월 (304만)보다 4.1% 감소한 292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306만 마리보다 4.6% 감소).
- 추석 이후 대형 유통업체 재고 부족으로 4/4분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분기 13,412원/지육kg보다 5.8% 상승한 14,189원임(전년 동기 13,255원보다 7.0% 상승).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설 성수기로 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2월 14,348원보다 1.3% 상승한 14,535원이었음. 그러나 암소감축사업이 진행되었던 전년 동월 13,438원보다는 8.2% 상승하였음.
- 도축 증가로 3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12월 292만 마리보다 4% 감소한 281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97만 마리보다 5% 감소).
- 설 이후 비수기에 접어들어 2~3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월보다 3~10% 하락한 13,000~14,000원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2,233원보다 6~15% 상승).

9) 이 자료는 농업진흥센터 허 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이형우 연구원(lhw0906@krei.re.kr), 김원태 연구원(wtkim@krei.re.kr), 김형진 연구원(junjang00@krei.re.kr), 김진년 연구원(forever8520@krei.re.kr), 한봉희 연구원(hanbh@krei.re.kr) 이 작성하였음.

● 대책 방향

- 할인행사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소비자 물가에 부담
- 한우 도매단계와 소비자가격 모니터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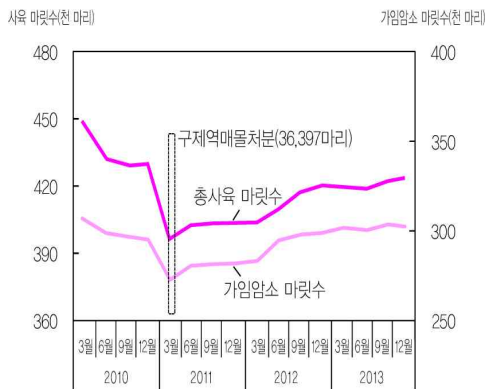
【 한육우 사육 마리수 및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2013. 12월(A)	2014. 3월(B)	B/A
사육 마리수	292만 마리	281만 마리	-3.7%
1등급 가격 (지육kg)	10~12월 14,189원	2~3월 13,000~14,000원	-8.4~-1.3%

자료: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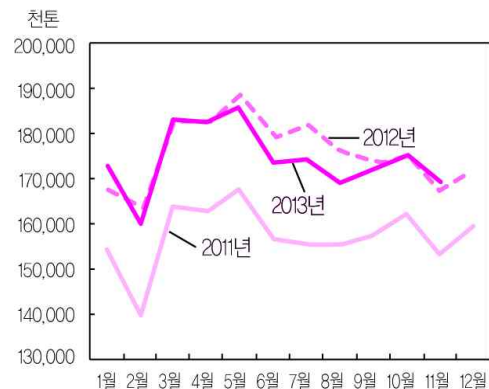
6.2. 젖소

【 사육 동향 】



자료: 통계청

【 원유 생산 동향 】



자료: 낙농진흥회

● 2013년 4/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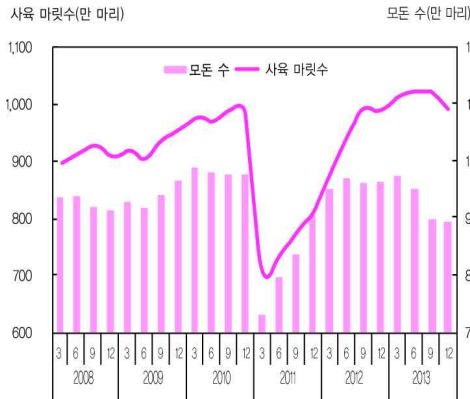
- 12월 젖소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42만 4천마리, 가임암소는 1.4% 증가한 30만 4천 마리임.
- 2013년 10~11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34만 3천톤이 있음. 한편 4/4분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3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함.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3월 원유 생산량은 2013년 1분기 보다 0.7~1.7% 증가한 51만 9천~52만 4천 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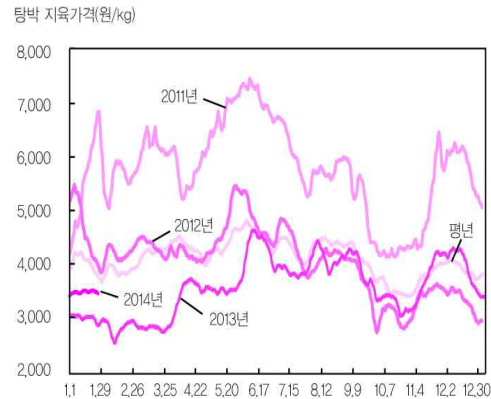
6.3. 돼지

【 돼지 사육 마리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돼지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3년 4/4분기 동향

- 12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9월보다 2.7% 감소한 991만 마리, 모돈수는 9월보다 2천 마리 감소한 89만 5천 마리였음(통계청).
- 도축 마릿수가 전년 동기보다 7.9% 증가하였지만 육가공업체의 작업량 증가와 수산물 소비 대체로 4/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 3,281원보다 11.6% 상승한 탕박 1kg 기준 3,662원이었음.

● 2014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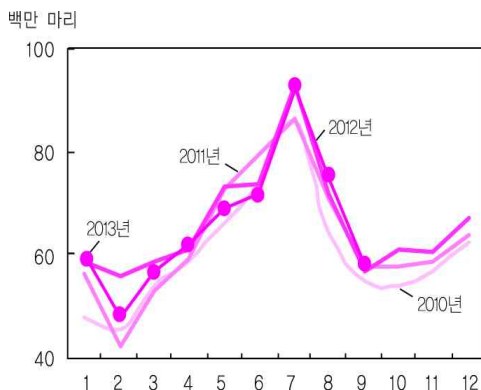
- 모돈 감축과 여름철 수태율 저하로 자돈 생산 마릿수가 감소하여 3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년 12월보다 6% 내외 감소한 920~940만 마리로 전망됨.
-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산물 소비대체 효과도 존재하여 1/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2,905원)보다 높은 탕박 기준 3,400~3,500원/kg으로 전망됨.

● 대책 방향

- PED 예방 위한 방역 강화, 생산성 낮은 모든 교체, 모든 생산성 향상 노력
- 저지방 부위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리법 개발 및 보급, 육가공품의 국내산 원료육 활용 확대 등 지속적인 소비촉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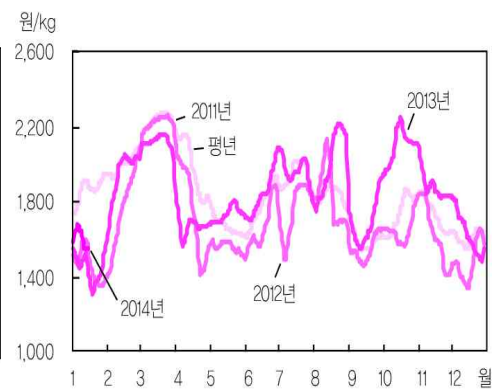
6.4. 육계

【 도계 마릿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육계 산지가격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 2013년 4/4분기 동향

- 2013년 4분기 육용 종계 노계 도태 감소로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병아리 생산량이 증가하고, 육계 생산성 향상으로 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억 9,100만 마리로 추정됨.
- 강도 높은 부정육 단속으로 인한 계열업체의 냉동 비축의향 감소로 냉동비축 물량 전년보다 크게 감소함. 이에 따라 국내산 신선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산물의 닭고기 대체 수요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됨.
- 4분기는 도계 마릿수는 증가하였지만, 냉동비축물량이 감소하고 닭고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2013년 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18.8% 상승한 1,882원/kg임.

- 2014년 1/4분기 전망
  - 2014년 1분기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간보다 크게 증가하여 2014년 6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됨.
  - 병아리 생산 증가로 1분기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수입량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분기 닭고기 공급 증가로 평균 산지가격이 전년 동기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1월: 1,400~1,600원/kg, 2월: 1,500~1,700원/kg, 3월: 1,500~1,700원/kg)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1분기 닭고기 수급 변동에 의해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망치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
- 대책 방향
  -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1분기 뿐만 아니라 2014년 전반적으로 병아리 생산이 과잉될 것으로 우려됨. 지속적인 종계 노계 도태와 계획적인 종계 병아리 입식이 필요한 시기임.
- 철저한 방역 실시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이 발생하였음. 철저한 차단방역과 농장 관리로 질병을 예방해야 할 것임.

## 6.5. 산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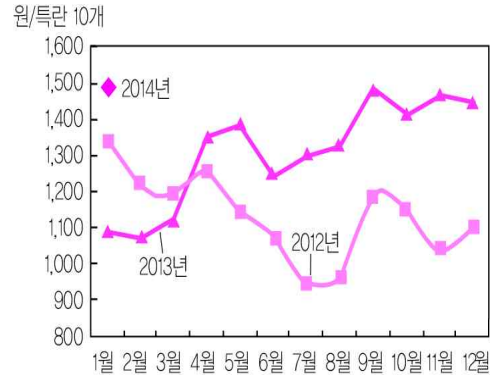
- 2013년 4/4분기 동향
  - 2013년 12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482만 마리로 전년보다 5.7% 증가하였음.
  - 4분기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976만 마리였으며, 4분기 산란 노계 도태는 전년보다 7.1% 감소한 593만 마리였음.
  - 수산물 대체효과, 연말 가공 수요 등으로 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1% 상승한 1,434원(특란 10개)이었음.

【 산란계 사육현황 】



자료: 통계청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자료: 농협중앙회

● 2014년 1/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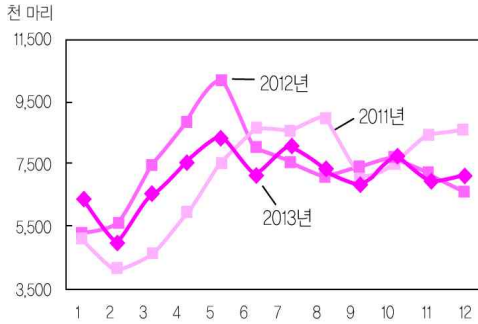
- 2, 3분기 산란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 증가로 2014년 1분기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4,792만 마리로 전망됨.
- 병아리 입식 마릿수 증가와 산란 노계 도태 마릿수 감소로 2014년 1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8.5% 증가한 6,345만 마리로 전망됨.
- 2014년 1월(27일까지) 계란 산지가격은 1,487원(특란 10개)으로 전년 동월보다 36.9% 상승함.
- 계란 공급량은 증가하나 설 특수로 4분기 계란 산지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1,300~1,500원으로 전망됨.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1분기 닭고기 수급 변동에 의해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망치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

● 철저한 방역 실시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이 발생하였음. 철저한 차단방역과 농장 관리로 질병을 예방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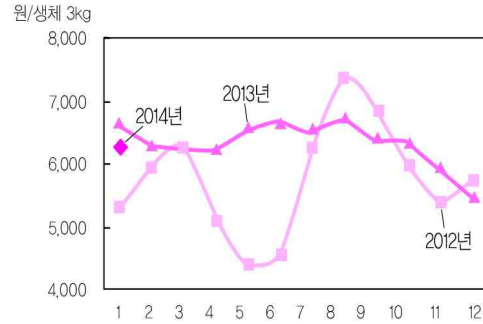
## 6.6. 오리

【 도입 마릿수 추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오리 산지가격 동향 】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3년 4/4분기 동향
  - 2013년 12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1,090만 마리로 전년보다 2.3% 감소하였음. 그 중 종오리는 106만 마리로 전년보다 13.6% 감소하였음.
  - 4분기 오리 도입 마릿수는 전년보다 0.2% 증가한 2,175만 마리였으나, 오리고기 수요 증가로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3.2% 상승한 5,886원/3kg이었음.
- 2014년 1/4분기 전망
  - 10월 산란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9% 감소한 4,629톤이었음. → 2014년 1분기 오리고기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분기는 오리고기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임. 계절적인 요인 외 추가적인 변동 요인이 없어 수요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오리 고기 공급 감소 예상되어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1분기 오리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6,200~6,700원/3kg으로 전망됨.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1분기 오리고기 수급 변동에 의해 오리고기 산지가격은 전망치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
- 철저한 방역 실시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이 발생하였음. 철저한 차단방역과 농장 관리로 질병을 예방해야 할 것임.



# 특별주제

- ① 고추·마늘 유통실태와 소비자 구입패턴
- ②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특별 주제 1】

## 고추·마늘 유통실태와 소비자 구입패턴\*

한재환\*\*, 김지연\*\*\*

## 1. 서론

- 고추와 마늘은 국민 식생활의 필수적인 농산물이며 농업 생산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품목임. 그러나 고추와 마늘은 유통 경로와 상품적 특징, 가정 및 가공·외식업계의 선호와 구입패턴이 잘 파악되지 않아 수급·유통 대책의 결정이나 산업의 대응을 어렵게 함.
- 고추와 마늘의 수급 및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산과 수입 고추·마늘의 유통 경로의 특성과 변화를 조사·분석하며, 고추·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구입패턴을 파악하고 유통단계별 가격간 상호연관관계를 규명하도록 함.
- 본고에서는 고추·마늘의 유통실태와 소비자의 구입패턴을 조사하고 수급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급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도록 함.

\* 본고는 2014년 1월 발간된 「고추·마늘 유통실태와 소비자 구입패턴 분석 및 대응방안」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jykim12@krei.re.kr)

## 2. 고추·마늘 수급 추이

### 2.1. 총공급량과 식용공급량

- 건고추 총공급량<sup>1)</sup>은 최근 5년간 19만톤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국내생산은 감소하고 수입을 통해 총공급량이 유지되고 있음.
- 마늘 공급량은 2000년대 이후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마늘 생산량은 34만톤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연 3%씩 감소함.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수입의 증가로 최근 공급량은 일정수준을 유지함.
  - 종구용과 유통/가공 감모량을 제외한 마늘의 식용공급량('08~'12)은 총 공급량보다 11만톤 적은 28만 톤임.
- 최근 관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관련품목에 대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함.
  - 건고추는 관련품목 형태의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80%를 차지함에 따라 이를 수입량에 포함시켜야 함.

### 2.2. 소비량과 수요 변화

- 건고추의 1인당 연간 공급(소비)량과 식용공급량은 1% 이하의 감소추세임.
  - 1인당 공급(소비)량: ('99~'01) 4.4→('10~'12) 4.0kg/년, 연 0.5%씩 감소
  - 1인당 식용 공급(소비)량: ('99~'01) 4.2→('10~'12) 3.9kg/년, 연 0.4%씩 감소
  - 1인당 소비량(식품수급표의 순식용): ('99~'01) 2.4→('10~'12) 1.4kg/년, 연 3.8%씩 감소
  - 소비(공급)량 기준에 따라 감소율이 다른 것은 수입의 포함 범위 때문임. 본 연구에서는 냉동고추 등 2000년대에 빠르게 증가한 관련제품 수입을 포함시켰기 때문임.

1) 총공급량은 생산량과 수입량, 순이월량의 합임.

- 마늘의 1인당 공급(소비)량은 연 2%씩 감소 추세임.
  - 1인당 공급(소비)량: ('99~'01) 10.2→('10~'12) 7.7kg/년, 연 2.1%씩 감소
  - 1인당 식용 공급(소비)량: ('99~'01) 7.2→('10~'12) 5.8kg/년, 연 1.8%씩 감소
  - 1인당 소비량(식품수급표의 순식용): ('99~'01) 7.1→('10~'12) 5.7kg/년, 연 1.7%씩 감소
  - 마늘은 관련제품 수입이 적어 지표 간 감소 추세에 큰 차이가 없음.
  
- 최근 외식의 증가와, 전통식 회피 등의 이유로 고추와 마늘의 소비가 감소함.<sup>2)</sup>
  - 고추와 마늘의 수요함수 추정결과, 2001년 이후 소득탄력성이 감소함.
  - 종속변수는 1인당 소비량, 독립변수로 가격과 소득으로 하는 수요함수를 통상적 최소자승법(OLS)에 의해 추정함.
  - 고추와 마늘 모두 가격과 소득탄력성이 1보다 적게 추정되어 수요가 가격과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00년대를 전후한 소득 변수에 대한 구조변화를 차우검정(Chow test)에 의해 검정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소득 탄력성이 고추가 0.33에서 0.32로 감소하고, 마늘은 0.64에서 0.62로 감소한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 고추와 마늘의 수요함수 추정결과 】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R-squared
		2001년 이전	2001년 이후	
고추	-0.178	0.331**	0.319*	0.318
마늘	-0.295**	0.641***	0.620***	0.736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 저장성에 따라 향후 수요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저성장 추세로 소득증가율이 과거보다 낮아져 소득 증가에 의한 수요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수요 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 이용선 외(2011)에 의하면 한식 식단의 기본 반찬인 김치 소비량이 감소했으며, 이는 김치의 원료인 고추나 마늘 소비도 감소시켰을 것임.

- 식용소비(공급)량이 순식용소비량보다 감소율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외식·가공 용도의 고추와 마늘 이용량의 향방이 감소 속도를 좌우할 것임.
- 고추의 소비패턴은 서양식 등의 대체식품의 증가와 염장식품으로서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선호가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임.
- 마늘은 덜 매운 맛을 가진 대서마늘의 수요가 증가<sup>3)</sup>추세를 보임
  - 난지형 마늘인 대서마늘과 남도마늘의 주산지 시·군의 재배면적과 가격추이를 최근 5년간 살펴보면, 남도마늘과 달리 대서마늘은 면적(공급)이 증가하면서도 가격이 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3. 고추·마늘 유통 실태

#### 3.1. 유통경로와 시장경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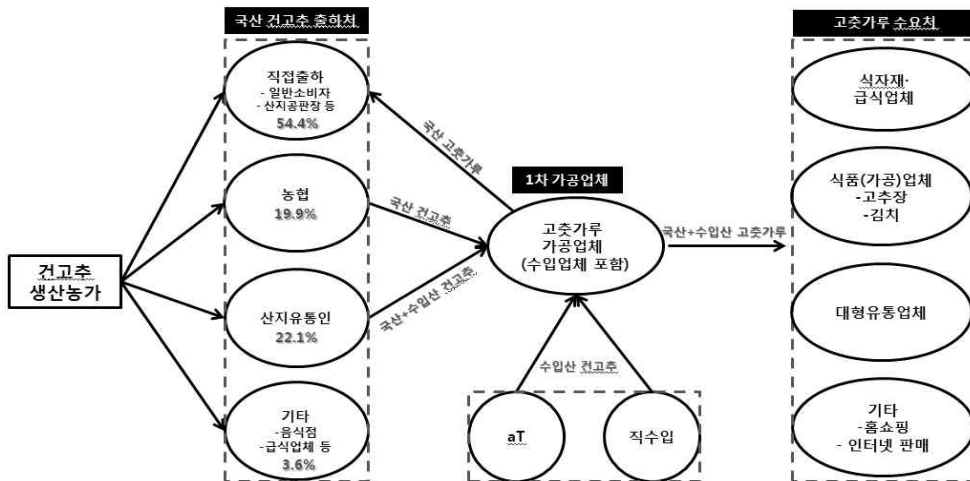
- 건고추 생산농가는 직접출하 비중이 54%로 높음.
  - 고추 생산농가는 친지·지인, 인터넷, 고추 축제 등을 활용한 직접 출하비중이 가장 높음. 최근에는 산지공판장, 고춧가루가공사업소 등으로 홍고추 형태의 직접 출하도 증가하는 추세임.
  - 생산농가는 저온창고가 대부분 없어 5월 이전에 출하를 완료함.
- 건고추의 주요 유통경로는 산지유통인-도매상이지만, 최근 산지공판장-대형수요처 비중이 확대됨.
  - 산지유통인과 산지공판장은 수집·저장·분산 기능을 수행함. 안동, 제천, 정읍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안동은 공판장을 중심으로 취급량이 확대되는 추세임.

---

3) 2013 농업전망

- 각 지역에서는 소수 유통인의 시장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판장이 활성화되어 경쟁적 가격 형성에 도움
- 최근 고춧가루 형태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고춧가루가공업체의 역할 증대
  - 가정용과 업무용 모두 고춧가루 형태의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고춧가루가공업체(제분업체)가 가공·분산 기능을 담당함. 고춧가루가공업은 제분 등을 위한 기술·자본이 요구되어 가공업체의 규모가 확대되며 수입판매업을 통합하는 추세임.
  - 1차가공업체(제분업체, 깎마늘업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도 하기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고춧가루 가격 동향 등 일부 모니터링 가능

【 건고추와 고춧가루 유통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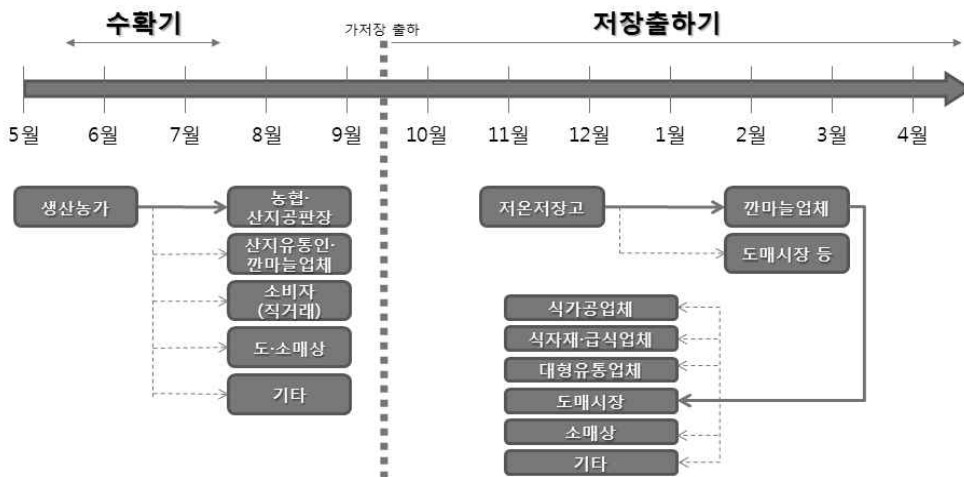


- 수입 고추는 도매상-고춧가루가공업체-대량소비처(가공·외식업체)로 주로 유통<sup>4)</sup> 되고 있으며, 고춧가루가공업체는 단순 가공만이 아닌 수입-가공-판매 기능으로 역할을 확장함.
- 수확기 마늘 유통은 농협, 저장출하기는 깎마늘가공(저장)업체 위주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농산물 국내 유통·소비 실태 조사결과, 2013을 참조함.

- 농가 단위 마늘 출하는 농협 계통 출하 비중이 48%로 높음.
  - 성출하기 산지출하에서 산지공판장의 취급 비중이 확대됨.
  - 저장출하기에는 저장업체-간마늘업체(저장업체)-도매상 중심으로 거래됨.
- **간마늘 중심의 유통되며 간마늘업체의 역할 확대**
- 소비지에서 마늘은 통마늘이 아닌 주로 간마늘 형태로 유통됨. 도매시장에서도 간마늘 취급 비중이 높고, 간마늘업체에서 가공·외식업체 등 소비처로 직접 판매 비중이 높음.
  - 간마늘업체가 수집·저장업까지 겸영하며 저장·가공·분산 기능을 통합·계열화하는 추세임.

【 시기별 마늘 유통경로 】





### 3.2. 유통·가공업체 조사결과

- 고춧가루가공업체<sup>5)</sup>의 2010~2011년 국산 건고추 가격 급등 이후 수입산 사용 비율이 증가함.
  - 수입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산 가격과 관계없이 수입산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가공·외식업체가 늘어났음. 이는 가공·외식업체의 국산 건고추 소비부진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2013년산 고춧가루가격의 하락폭을 확대시킨 것으로 보임.
- 국산 건고추 구입은 산지유통인, 수입산은 직접수입 비중이 높으며, 고춧가루 판매처는 식품가공업체, 식자재·급식업체 비중이 높음.
- 건고추 중도매인의 경우<sup>6)</sup>, 2010~2011년 수입산 취급 비중 증가하였으며, 국산 수입산 고추 구입처별 비중은 산지유통인이 높음. 국산건고추 판매처별 비중은 소매상, 식자재업체 순으로 나타남.
- 간마늘업체<sup>7)</sup>의 마늘 원료는 농가, 산지유통인 등을 통해 구입하고, 간마늘 판매처는 도매시장, 김치업체, 식자재·급식업체 비중이 높음.
-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마늘 주요 구입처는 저장업체·간마늘업체로 주요 판매처는 소매상, 식자재·급식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이고, 소매상 출하 비중이 가장 큼.

5) 고춧가루가공(제분)업체의 국산과 수입산 건고추 사용비율과 구입·판매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 5개 업체를 유의 선정하여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

6) 가락시장내 중도매인들의 국산과 수입산 건고추 취급비율과 구입 및 판매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도매인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7) 소재가 파악된 간마늘업체 23개소 중 설문에 응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면접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간마늘업체 중 농업법인이 13개소(59%)로 가장 많았음.

【 수입산 견고추(관련품목) 판매처 비중 】

단위: %

도매시장	1차 가공업체	재래시장 소매상	식품 (가공)업체	대형 식자재업체	대형 유통업체	기타
9.2	3.3	5.8	40.5	20.4	2.9	7.6

- 수입업체 조사결과<sup>8)</sup> 수입업체는 고춧가루가공업 경영 비율이 높으며, 견고추(관련품목) 판매처는 식품가공업체, 대형식자재업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수입마늘 판매처는 통마늘은 가공업체, 냉동마늘은 소매시장과 식가공업체인 것으로 조사됨.

### 3.4. 유통마진

- 고추의 유통마진은 고추, 마늘 모두 감소추세이지만 최근 다시 증가함. 고추의 유통마진은 2011-12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음.
  - 고추의 마진율은 풍작년('05, '07, '12)에 낮고, 흉작년('09~'11)에 높은 경향을 보이며, 유통단계별 마진 비중은 가공, 소매, 도매 순으로 가공마진은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임.
  - 견고추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고추의 마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냉동고추 가공 시 가공·유통 마진은 25% 이상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마늘의 경우 통마늘 도매 및 깎마늘 소매마진은 감소, 깎마늘 가공·도매마진은 증가함.
  - 깎마늘 가공·도매마진이 증가한 것은 깎마늘업체가 저장·가공·판매업을 겸영하면서 시장지배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8) 수입업체의 구입 및 판매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 15개 업체(고추 12, 마늘 3)를 유의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마늘의 유통마진율은 감소했으나,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2013년도의 마진률도 75% 수준으로 상승함.

### 【 고추와 마늘의 유통 경로와 특징 비교 】

		고추	마늘
유통 경로	수확기	농가 직접출하 54%, 경로 다양, 산지공판장 비중 증가	농협계통출하가 48%, 산지공판장 비중 증가
	저장 출하기	산지유통인-고춧가루 가공업체-대량소비처	저장업체-깐마늘업체 -도매상
수입산 유통경로		수입·도매상-고춧가루가공업체 -가공·외식업체	수입상-깐마늘업체-가공·외식업체
유통 특징		(건고추) 산지공판장 기능이 확대 (고춧가루) 소비지에서 고춧가루가공업체의 역할 확대	깐마늘 형태로 유통되어 깐마늘업체의 역할 강화
경쟁 구조		주산지역별로 산지유통인의 과점진적 구조 지속 고춧가루가공업체는 수입·가공·판매 계열화 확대	깐마늘업체는 저장·가공·판매 계열화로 지배력 강화
유통 마진		2011-12년산 가공-소매마진이 증가 유통마진율은 풍년에 낮고 흉년에 높은 경향 수입고추의 마진율은 감소추세	깐마늘 가공마진이 증가 유통마진율은 풍년에 낮고, 흉년에 높은 경향 마진율은 하락후 '13년 급등

## 4. 소비자 인식과 구입패턴<sup>9)</sup>

### 4.1. 가구소비자의 인식과 구입패턴

- ‘안전성’ 요인으로 친지와 지인 통한 구입 비중 높으며, 조달 형태는 건고추보다 고춧가루로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고추제품 조달형태 】

단위: 명, %

	건고추로 조달	고춧가루로 조달	건고추& 고춧 가루로 조달	먹지 않음	계
응답자수	62	291	360	7	720
비중	8.6	40.4	50.0	1.0	100.0

- 고춧가루 형태로의 구매 많고, 구입하여 조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고추나 고춧가루를 구입하는 경우 안전성의 이유로 친지나 지인을 통한 구입비중이 가장 높았음.
- 마늘은 고추제품에 비해 구입하여 조달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마늘도 고추와 같이 안전성의 이유로 특정구매처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품 구매 시 주 고려사항은 ‘원산지’와 ‘안전성’으로 국내산 구입 비중이 높았고, ‘가격’ 이외에 확인하는 사항으로 ‘원산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수입산 구입 경험은 매우 미미하나 수입산 구입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안전성 차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산 고추·고춧가루, 마늘의 ‘품질·안전성’ 수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고추·마늘상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9)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입의향 분석을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는 2013년 9월 25~10월 9일까지 15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7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설문 조사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분당, 춘천, 전주, 청주 등 11개 지역임.

## 【 구입 시 원산지 확인 여부 】

단위: %

	전혀 확인 안함	확인 안함	모르겠음	확인함	반드시 확인함	계
건고추	1.4	2.4	5.2	42.5	48.4	100.0
고춧가루	1.1	2.6	2.3	42.9	51.1	100.0
고추장	1.1	6.0	5.7	49.8	37.5	100.0
마늘	0.4	2.5	5.4	56.3	35.3	100.0

- 국내산은 충성도가 높고, ‘가격 인상에 상관없이 국내산 구입’을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입의향은 ‘안전성’의 이유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내산 소비확대를 위해 안전성, 품질 수준 제고가 필요함.

### 4.2. 외식업체의 인식과 구입패턴<sup>10)</sup>

-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로의 구입비중이 높고, 마늘은 다진마늘 형태로의 구입비중이 높음. 고추는 수확기에 국내산 사용 비중은 높고, 마늘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구입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업체의 50%는 중국산 구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산 고추제품의 산지구매, 납품업자를 통한 구매비중이 높으며, 마늘제품은 납품업자를 통한 구매비중이 높고, 다진마늘을 제외한 수입산은 도매시장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 외식업체의 중국산 고추와 마늘 구입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300업체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10 ~ 11월8일까지 29일 동안 이루어짐.

#### 4.3. 식품가공업체의 인식과 구입패턴<sup>11)</sup>

- 가공업체의 판매처에 따라 원재료 원산지에 차이가 있으며, 마늘의 국내산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원료구매는 연중 일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원재료는 대부분 1차 가공형태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 전반적으로 업체는 소비자보다 중국산에 대해 우호적으로 나타났음.
  - 고추를 사용하는 업체 중 가공용으로 냉동고추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산 고추 가격이 높았던 지난 2년 간 중국산 원재료의 구매가 증가한 경향을 보임.

### 5. 유통단계별 가격 간 연관관계 분석

- 산지-도매-소매-수입 가격 간 장기적 균형관계가 성립함.
  - 유통단계별 가격 사이에 하나의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함. 이는 유통단계별 가격 변동 간에 장기적으로는 서로 일정한 비례적 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함.
  - VECM 모형 추정결과, 오차수정항의 부호는 모두 음(-)으로 나타나 어느 가격 이(외생적 요인에 의해) 단기적으로 다른 가격과의 장기적 균형관계에서 벗어 나더라도 공통추세인 장기균형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뚜렷함.
- 단기적으로는 소비지 가격이 산지가격에 앞서 변동하지만, 타 가격의 변동에 대한 설명력은 산지가격이 더 큰 경향임.
  - 그랜저(Granger) 인과성 검정에 의하면 유통단계별 가격 사이에 단기적으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대체로 소매가격, 도매가격, 산지가격 순으로 먼저 변동하는(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타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는 크기는 산지가격

11) 대량수요처의 구매패턴 조사를 위해 면접, 전화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김치업체 6군데, 장류업체 2군 데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은 소매가격에서 출발하여 도매가격, 산지가격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산지가격의 변동은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의 변동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가격 상승 시와 하락 시 유통단계별 가격 간 전이는 비대칭적임.
  - 도매가격이 하락 시 산지가격도 하락하지만, 도매가격이 상승해도 산지가격은 단기에 상승하지 않는 경향임. 소매가격이 상승할 때 도매가격도 상승하지만, 소매가격이 하락해도 도매가격은 즉시 하락하지 않는 경향임.
  -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 등락을 이용하여 중간유통업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6. 유통 및 소비 개선 과제

### 6.1. 수급지표의 개선과 1차 가공품에 대한 관심 증대

- 관련제품 수입량을 포함해 공급(소비)량을 추정해야 정확한 수급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급 지표를 작성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가정용과 가공·외식용, 국산과 수입산, 수확기와 저장출하기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함.
- 최근에는 소비지에서 원물보다는 1차가공품인 고춧가루나 깐마늘 상태의 유통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1차가공품의 수급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요구됨.

## 6.2. 원산지표시제도 강화로 국내산 신뢰 제고

- 소득향상 및 식품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 증가, 그리고 농식품의 수입 증가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농식품을 선택·구입하는데 일조함.
- 원산지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와 효율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함.
  - 이력추적제나 검역업무와 상호 밀접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가 가능할 것임.
-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속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특정시기에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위반자(업체)들에게 표시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공마늘도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김성훈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향후 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선 대상 품목 가운데 마늘을 콩 다음 순위로 선정함.

## 6.3. 맛 등급화 추진을 통해 다양해진 소비자 선호에 대응

- 고추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매운맛에 대한 등급화를 추진해야 함.
  -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기업(CJ해찬들, 대상 청정원)의 연구진과 공동으로 고추장과 핫소스 제품의 매운맛 특성구분, 등급구분 지표 개발, 소비자 관능검사, 표시방안 제시 등을 위해 매운맛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바 있음.<sup>12)</sup>

12) 고추장 매운 맛 등급은 순한 맛(mild), 약간 매운 맛(slightly hot), 보통 매운 맛(moderate), 매운 맛(very hot), 매우 매운 맛(extremely very hot)까지 5단계로 세분화하여 고추장 제품을 출시함.



- 농촌진흥청의 매운맛 측정기의 개발로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이 손쉬워짐.<sup>13)</sup>
- 고춧가루(건고추)의 매운 맛을 3~5단계로 구분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표준적 규격 기준을 제시하되, 규제 차원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추진함.

#### 6.4. 거래소 및 거래정보 확충으로 균형가격 조기 실현

- 산지공판 기능을 확충하여야 함.
  - 산지공판장은 고추·마늘의 수급균형가격 수준을 조기에 발견하고 투명한 원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현재 산지공판장은 경북 안동 지역에 한 개소 운영 중인데 타 주산지(호남지역이나 충북지역)에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있음.
  - 산지공판장은 원물의 가격 발견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가 소비지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인터넷 거래정보에 대한 수집·분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개별 거래자료는 공표할 수 없으나 집계된 자료는 공유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사이버거래소는 급식용 식재료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식재료로서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도매시장간 통합 전자거래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추와 마늘의 전국적 균형도매가격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개별 도매시장은 거래규모가 적어 도매가격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움.

13) 기존의 측정법(HPLC)은 분석 시 6시간 이상 소요(전처리 포함)되며, 1점당 5~10만원으로 분석비용이 고가임.

## 6.5. 산지유통조직의 육성과 생산·유통인프라 확충

- 식약처의 HACCP 적용 확대에 따라 가공기능을 갖고 공동유통이 가능한 종합 처리시설(유통센터)을 건설하고 농협을 비롯한 고춧가루가공업체나 깎마늘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함.
- 시설 운영은 마케팅 등 경영능력이 뛰어난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원료확보에서 가공·판매까지 계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이러한 조직이 관내 계약재배농가의 재배품종을 수요에 대응하여 통일적으로 배분하고,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까지 일괄하여 수행해야 함.
- 저비용으로 생산·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조직 회원을 중심으로 비가림 재배 시설을 지원하거나 중구 보급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6.6. 수입 제품에 대한 수입 관리 체계 강화

-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대기와 같은 관련제품을 포함한 고추와 마늘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불법적으로 가공되고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우선 다대기 등에 대한 국제품목코드(HS code)의 세 번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거나 타 세 번과 통합하는 등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그간 WTO 운용 경험에서 볼 때, 세 번 변경으로 기존 관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관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편법 행위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후 추징 등의 관리가 필요함.
  - 원래 냉동고추를 저율 관세 품목으로 설정한 것은 냉동고추의 용도가 가공용으로 매우 한정되기 때문임. 이를 수입 후 건조하여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판

매한다면 사후에라도 관세 차액을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함.

-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업체를 평가하여 우수업체와 불량업체로 등급화하거나 기록부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이 있음.
  -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우수 수입업체와 불량 수입업체를 구분하고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량 업체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는 것임.
  - 국산과 수입산 고추·마늘에 대한 기록부의 구분 작성을 의무화하여 냉동 제품의 용도 전환이나 혼입에 의한 둔갑 판매 등을 감시하는 방안임.

### 【 수입농산물 수입·유통 단계별 부처 간 역할 】

	수입·통관 단계	국내 유통 단계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관련 법률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관련 고시	농산물품질관리법

- 수입농산물의 유통(원산지 관리)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부처 간 관할 영역이 이원화되어 있음. 수입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간 정보의 공유와 긴밀한 업무 협력이 요청됨.
  - 수입통관 단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국내 유통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영역임.

## 6.7. 품질제고를 통한 국내산 경쟁력 향상

- 국내 건고추의 90% 이상은 고춧가루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음. 약 400여개로 추정되는 가공공장 중 90%정도는 연간 생산량이 50톤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파악됨.
  - 소규모의 가공 공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뿐만아니라, 상품의 품질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

은 고추와 마늘식품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각각 32.3%, 33.6%가 품질개선을 꼽음.

- 국내산 고추는 중국산에 비해 적색소 함량이 낮고, 내병성·저항성 품종이 보급되어 색상과 당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중국산 보다 품질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국내산 고추는 ASTA(적색소) 함량은 중국산 보다 낮은 반면 유리당 함량은 높음. 그러나 최근 중국은 품종개량을 통해 유리당 함량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소비자의 고추상품에 대한 고품질 요구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크기, 색도, 수분 등 외적인 요소 외에 고색소, 고신미, 유리당 함량 등 내적인 품질향상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이는 우수 고추 품종개발과 산지부터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작업체계 구축을 통해 가능함. 고추종합처리장(Red Pepper Processing Complex, RPPC)<sup>14)</sup>은 고추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마늘의 경우 한지형 마늘은 중국산보다 품질이 우수하지만, 난지형은 그렇지 못함. 국내산의 탈피수율과 탈피마늘수율이 중국산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품질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산 마늘의 수입산 대비 경쟁력 열위를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맛' 요인을 꼽은 비중은 고추상품보다 2.9%p 높고, 소비확대를 위해 품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중도 고추상품보다 다소 높음.
  - 마늘 생산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GAP 인증 신청률은 미미하지만, 국내산 마늘의 GAP 인증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4) 종합처리장은 농가에서 고추를 수매하여 세척부터 건조까지 규격화·표준화된 일관작업을 통해 품질이 좋은 고추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함. 선진화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은 보다 안전하고 고색소, 고신미 등 고품질의 고추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국내산 고추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사업체로서의 효율적인 경영체계의 확립이 요구됨.

## 7. 참고 문헌

- 강태훈. 2007. “농산물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의 비대칭 가격전달에 관한 연구.” 농업경제연구.
- 강태훈. 2011. 농협 계약재배를 통한 최저보장가격정책의 효과에 관한 사건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 국승용외. 2011.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필외. 2010. 「고추 가공제품의 해외 소비 동향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환외. 2008. 최저보장가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김동환외. 2009. 비상장품목 도매유통 발전방안 연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김병률. 2011. “채소 수급 및 유통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김병률외. 2004. 주요 채소의 수급 및 가격안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외. 2010. 「양념채소류 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홍승지. 2006. “양념채소의 지역별 경쟁력 비교와 시장개방 파급영향 분석 : 고추·마늘을 중심으로.” 「食品流通研究」 제23권 제2호 pp.119-144.
- 김성훈외. 2011. 「마늘 유통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김성훈외. 2012. “마늘의 도매시장 거래제도 분석.”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농업과학연구」 39(2): 291-297.
- 김연중외. 2006. 「새싹쌈채소 생산유통실태 및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훈, 김배성. 2009. 곡물가공품 가격의 반응시차와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 농촌경제.”
- 농림수산식품부. 2012. 「글로벌시장의 고추 가공제품 특성 및 소비자동향 분석 : 제2핵심」.
- 농림수산식품부. 2008. 「고추의 유통환경 및 물류효율 향상을 위한 RFID적용 RPPC의 물류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 농촌진흥청. 2006. 「고추 용도별 유통 품질 표준화에 관한 연구. 3차년도」.
- 박승환, 김 갑. 2005. “마늘 유통경로 수준별 적정거래량에 관한 연구.”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제17권 제4호 pp.296-301.
- 신용광외. 2010.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분석.” 농업경제연구.

- 안병일. 2007. 마늘과 양파에 대한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검증. “농촌경제.”
- 양승룡, 최윤영. 2008. “농산물 유통마진 분해: 초과이윤인가 위험프리미엄인가?” 농업경영정책연구.
- 이용선의. 2006. 청과물 가격 변동의 시계열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선의. 2008. 수입청과물의 유통체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위태석, 황수철. “수입채소의 국내유통 및 이용실태분석.” 「한국식품유통학회」.
- 전창곤외. 2007. 「안동고추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활성안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병옥외. 2011. 「비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념채소류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병옥, 김연중. 2011. 고추·마늘 거래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병옥외. 2011.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창렬. 2006. “남해 마늘의 산지유통구조 분석.” 「진주산업대 벤처창업대학원」.
- 허길행외. 2009. 「마늘유통 개선방안」. GS&J 인스티튜트.
- 황윤재외.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외. 2012. 주요 유통사업군 정책사업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nders, W. 1995. Applied Economic Time Series. John Wiley & Sons.
- Tsay, R. 2010. Analysis of Financial Time Series. Willey.

## 【특별 주제 2】

##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안형덕\*

### 1. 서론

-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가계지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은 우리의 식탁에서 매일 접하는 품목으로 기초생활과 연계되어 있고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성이 커서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특히, 농산물의 가격불안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등 2, 3차산업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음.
- 농산물은 생산의 계절성과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변동으로 공급의 증감이 심하고, 수요의 비탄력성과 공급조절 수단의 한계로 가격변동성이 높음. 가격하락은 생산자의 소득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차기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며, 가격상승은 소비자의 식품 구매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안정은 오랜 숙원 과제로 남아 있음.
- 그동안 정부와 관련 단체는 농산물의 생산이전 단계에서 부터 농업관측·비축·계약재배·유통개선 등 다양한 수급안정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참여가 없는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종전에 시행해온 정부주도의 수급조절 정책을 지난해부터 「참여」와 「합의」 방식으로 개선하였는 바, 그 내용과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코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수급관리팀장(anhd@korea.kr)

## 2. 기존 수급안정 정책 내용과 한계

### 2.1 주요 수급안정 정책

-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량이 생산·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이를 위해 농업관측, 계약재배, 수매비축 및 수출입 조절 등을 추진함.
  - 농업관측은 파종전 단계에서부터 재배의향·작황·생산·가격전망 등을 분석, 생산자·정책담당자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출하조정 및 정책당국의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뒷받침
  - 계약재배는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기 이전에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출하기 가격동향에 따라 농협이 체계적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
  - 비축사업은 aT 등을 통해 가격이 낮은 시기에 농산물을 수매한 후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판매함으로써 가격등락을 줄이는 역할 담당
- 또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구매시기를 늦추거나 대체품목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수요를 조절하는 노력도 병행함.

【 농산물의 주요 수급안정 정책 】

구분	주요내용
생산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관측(35개 품목)</li> <li>○ 안정생산 기반확충 : 생산시설 현대화·기계화 등</li> </ul>
공급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비축 : 배추, 건고추 등 / ○ 계약재배(노지채소 중심)</li> <li>○ 할당관세 등 운용, 과잉시 수출 등 수출입제도 운용</li> </ul>
수요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정보 제공(aT, 도·소매 가격) / ○ 「알뜰장보기 물가예보」 실시</li> </ul>



## 2.2 수급정책 추진의 한계

### 2.2.1. 가격변동성 심화

- 기상이변이 심했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특히 배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등락 현상도 심해짐.

#### 【 농산물 물가상승율 및 배추 가격변동 추이 】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의 표준편차('00~'12)



\* 자료: 통계청

배추가격 변동추이('00~'12)



\* 자료: KAMIS(1Kg 상품, 도매가격 기준)

### 2.2.2.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

- 농산물의 수급안정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할당관세 등 운용 시 품목단체의 집단행동 사례도 나타남.
- 또한, 수급상황을 소비자 등에게 제때에 잘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구매시기 조절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점도 제기됨.

### 2.2.3. 수급상황 판단기준 및 상황별 대응 매뉴얼 부재

- 위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화 되어 있지 않고, 상황별 대책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정책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또한, 수급상황별 정책이 투명하게 사전에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 확보에도 어려움 발생

### 3.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체계 구축 현황

#### 3.1 기본방향

- 종전 정부주도로 추진해오던 수급정책을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방향 】

구분	종전	개선
정책결정	정부주도로 결정	참여·합의를 통한 정책결정
대책협의	관련부처·단체와 개별 협의	「수급조절위원회」 일괄 협의
수급정보	기관·단체 분산 보유	상호공유
정책공개	정책 결정후 사후공개	수급조절 매뉴얼에 의한 사전공개

- 이를 위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를 「참여」와 「합의」를 위한 소통 기구로 활용
  - 종전에는 수급상황 판단을 위해 통계청 등 관련기관·단체로 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관련 부처 등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함에 따라 절차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위원회에서 일괄협의 함에 따라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
- 채소류 5대품목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사전공개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문제 발생시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단체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유도
- 또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수급문제 발생시 매뉴얼에 제시된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내산 농산물 비축강화, 계약재배 확대 및 수급·가격정보 제공 등을 강화

## 3.2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 3.2.1. 구성 및 운영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로서 「민·관」 합동으로 총 20명으로 구성하며, 생산자, 유통·소비자, 학계, 정부 등 분야별로 동 수(총 20명)를 반영하여 2013년 4월 30일 설치
- 위원장은 정부측과 민간대표 각 1명씩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회의는 수급조절 매뉴얼을 심의하는 정기회의(년 3회)와 임시회의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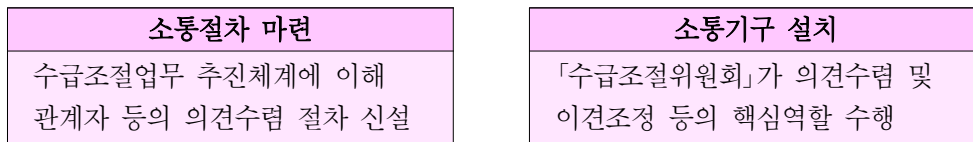
### 3.2.2. 주요기능

- 품목별 수급상황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간 이견 발생시 협의를 통해 사전조정
  - 수급문제가 예상될 경우 품목별 연간 수급전망과 과부족량 및 가격전망 등을 판단하고,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등락폭이 클 경우 위기단계를 심사
  -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등 수급안정제도 마련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품목별 「가격안정대」 및 위기단계 구간별 범위기준 설정,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품목별 정책수단(매뉴얼) 마련, 최저가격 조정, 기타 수급조절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수급상황 분석결과 대책수립 시 세부사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함. 여기에는 의무수입물량 증량 및 할당관세 운용시 규모 및 기간 설정, 비축규모, 수매기간 등의 적합성 검토,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시 이견 조정 등이 포함됨.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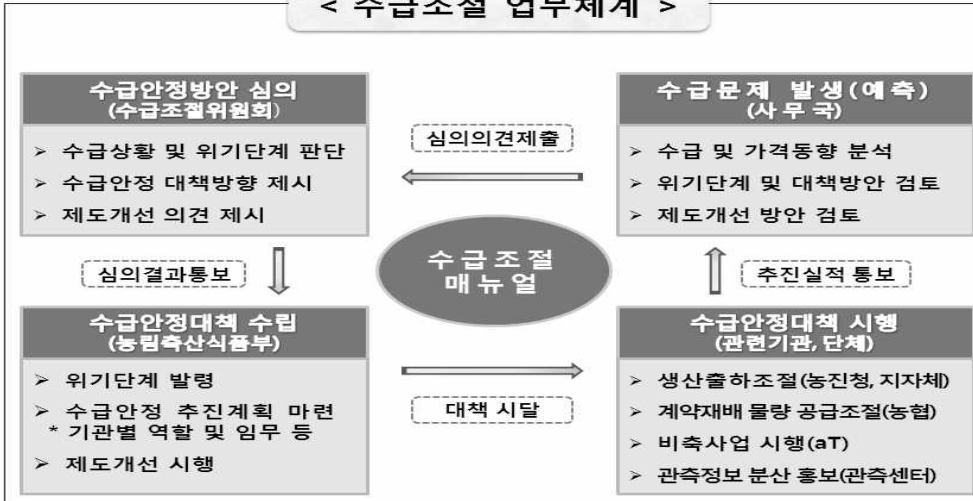
【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체계 】

< 목 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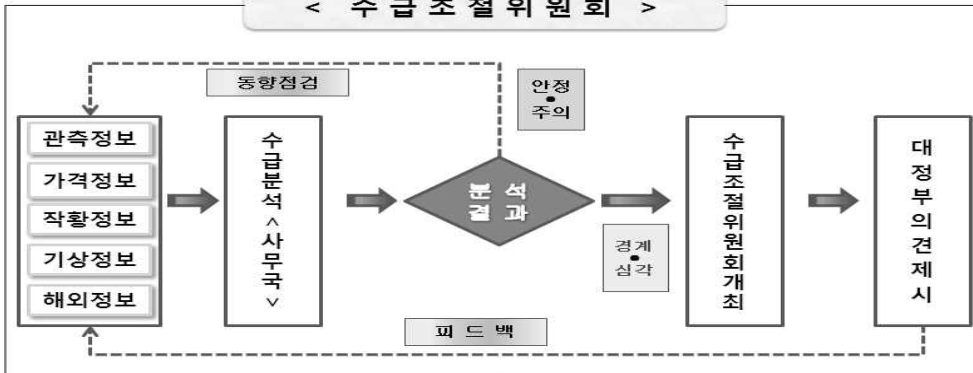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기반 구축



< 수급조절 업무체계 >



< 수급조절위원회 >



## 3.3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 3.3.1. 목적

- 농산물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사전에 예시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급을 조기에 안정화
- 수급상황에 따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수행할 역할과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위기대응 시 사각지대 발생 등 방지

### 3.3.2. 대상품목 및 기관·단체

- 대상품목은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양파로 하며, 적용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관측센터, 지자체 등으로 함.

### 3.3.3. 가격안정대 및 위기단계

- 상황 및 개념

	상 황	개 념
안정대 (Green)	통상적 변동폭 이내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	수급 및 가격이 균형을 이룬 단계
주 의 (Yellow)	다소간의 수급불균형으로 경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수급 및 가격이 약간 불균형이나, 소비자의 후생 또는 생산자의 소득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단계
경 계 (Orange)	상당한 수급 불균형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공급증가 등으로 생산자의 소득손실이 일부 발생 하거나, 가격상승으로 소비자의 후생에 지장을 주는 단계
심 각 (Red)	현저한 수급불균형으로 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농가 소득손실이 크게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구매비용 부담이 커지는 단계

- 위기단계별 가격범위는 다음을 기준으로 품목별 월별가격을 산출하되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

	가격범위
안정대 (Green)	○ 최근 3~5개년간 월별도매가격의 중앙값에서 표준편차의 0.5배이내의 상한 및 하한가격 범위내
주의 (Yellow)	○ 상승 : 표준편차의 0.5~1배의 범위 이내 ○ 하락 : 표준편차의 0.5~생산비(또는 중앙값의 70%) 이내
경계 (Orange)	○ 상승 : 표준편차의 1~2(또는 1.5)배의 범위 이내 ○ 하락 : 생산비 수준(또는 중앙값의 70%) ~ 최저가격 이내
심각 (Red)	○ 상승 : 표준편차의 2(또는 1.5)배를 벗어나는 가격 ○ 하락 : 최저가격 이하의 가격

### 3.3.4 위기경보의 발령

- 위기경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령하되 안정·주의단계는 발령하지 않고  
경계·심각단계만 발령함. 단, 생육단계에서는 예비경보를 발령할수 있음
  - 생육단계에서 과중면적과 작황 등을 토대로 추정한 출하기 예측가격이 위기단계에 해당될 경우 관련기관·단체에 한정하여 “예비경보” 발령
  - 출하단계에서 실거래가격이 위기단계로 진입하였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위기경보” 발령
- 발령절차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령하며, 상황의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차기 수급조절위원회에 보고

### 3.3.5.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및 기관별 임무

#### ● 단계별 조치기준

	주요 조치사항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단계로 발전에 대비한 사전준비 및 모니터링</li> <li>- 산지 작황 및 거래동향 점검, 수출입 가능성 파악</li> </ul>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단체중심의 공급조절 실시</li> <li>- (상승)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방출, TRQ물량 조기도입, 증량</li> <li>- (하락) 의무수입물량 수입연기 및 비축·계약재배 물량의 시장공급 억제, 가공용 공급확대 방안 등 검토</li> </ul>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시장개입 통한 공급조절 병행</li> <li>- (상승) 관세인하 검토 또는 시행, 필요시 해외물량 직접도입</li> <li>- (하락) 과잉물량 시장격리, 수출·소비확대, 생산감축</li> </ul>

#### ● 기관·단체별 임무 및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위기단계로 판단시 경보발령, 홍보 및 관련기관 통보, 수출입 물량 및 관세조정 관련 방침결정, 유통협약·유통명령 발령 요청시 관련조치, 관련 예산 및 제도 지원 등 총괄·조정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수급상황을 심의, 위기단계 평가 의견을 정부에 통보하고, 수급안정대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 (농진청과 지자체) 작황점검, 위기상황 전파 및 농가 출하조절 지도
- (농협)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 산지동향 점검 및 농가 출하조절 지도, 유통협약 및 명령요청 등 추진, 소비절약 또는 촉진 등 운동 전개
- (aT) 위기징후 포착시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수급조절위원회 제출, 비축물량 구매 및 방출, 가격정보 제공
- (농업관측센터) 농업관측정보 조사(중기선행관측 포함) 및 분석정보 제공, 필요시 관측속보 등 발행

● 위기 단계별·기관별 조치사항

	주 의 (Yellow)	경 계 (Orange)	심 각 (Red)
①농림축산 식품부	○관련 기관·단체 등의 모니터링 상황 종합 ○상황악화 가능성 주시	○경보발령 및 홍보 ○TRQ 증량 또는 수입시기 조절 방침 결정	○관세인하, 직수입 검토 ○과잉물량 시장격리, 수출·소비확대 지원
②수급조절 위원회	○위기단계 평가, 수급정책 관련 의견제시	○위기단계 평가, 수급정책 관련 의견제시	○위기단계 평가, 수급정책 관련 의견제시
③농촌진흥청	○관찰포 생육상황 등 작황 점검	○작황점검, 위기상황 전파 및 출하조절 지도	○위기상황 전파 및 출하조절 지도 강화
④농협중앙회 (조합)	○주산지 농협 계약재배상황 및 산지 거래동향 점검	○계약재배물량 시장 공급확대 또는 출하억제, 유통협약 추진	○유통명령 요청 검토 (추진가능품목에 한함) ○소비절약·촉진 운동
⑤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사무국)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수급조절위원회 상정여부 판단 ○가격동향 점검	○수매 또는 방출 조절 ○TRQ증량 또는 수입시기 조절 방침 이행 ○알뜰장보기 홍보	○필요시 해외물량 도입 ○수출정보 제공 또는 민간비축 지원
⑥농업관측 센터	○관측정보 조사·제공	○관측조사 강화	○필요시 관측속보 발행
⑦지방자치 단체	○산지동향 모니터링 ○위기징후 발견시 보고	○위기전파 및 출하조절 지도	○위기전파 및 생산·출하조절 지도

\* 주) 각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에는 앞 단계까지 조치사항이 포함됨.



### 3.3.6.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내 용	
대 응 체 계 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조절위원회 사무국) 불안징후 발생시 위기단계 자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대 이내」 또는 「주의단계」로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모니터링 지속 실시</li> <li>- 「경계」 또는 「심각」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위기단계를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 작성 등 필요 조치 시행</li> </ul> </li> <li>○ (수급조절위원회) 사무국의 위기단계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li> <li>○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경계 또는 심각단계 발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 검토후 위기경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상황의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차기 위원회에 사후 보고)</li> <li>* 사무국으로부터 주의단계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li> </ul> </li> <li>○ (관련기관·단체) 기관별 임무 및 단계별 대응기준에 따라 대책 시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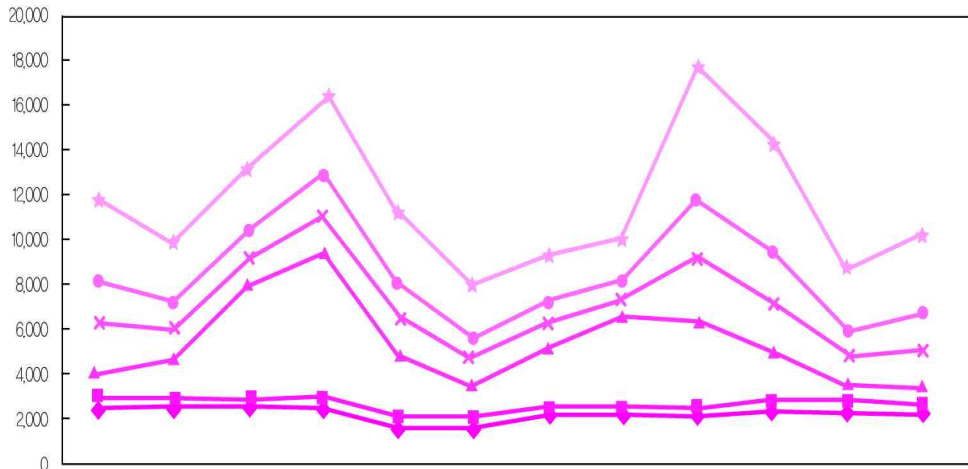
### 3.3.7 농산물의 품목별 위기단계 구분

#### 3.3.7.1. 배추

- 위기단계는 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함.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생산비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생산비 ~ 최저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2배 범위
최저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2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10kg)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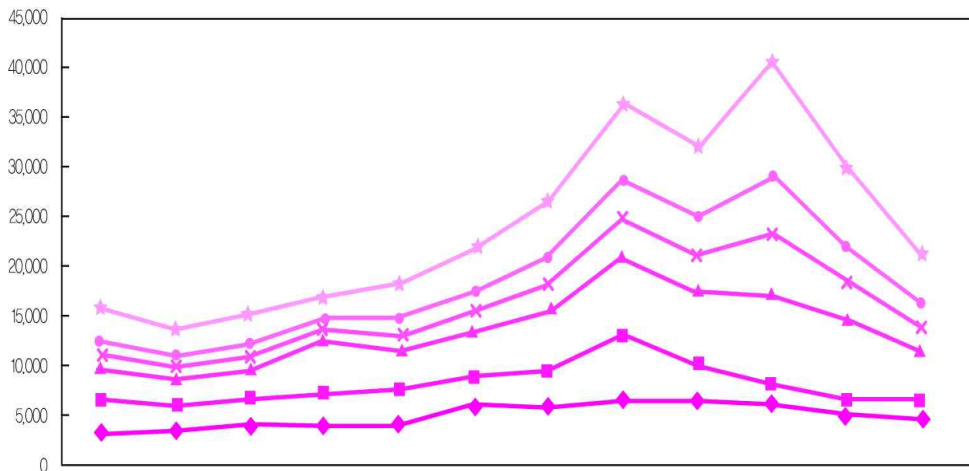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심각	11,783	9,756	13,137	16,262	11,244	7,851	9,406	9,988	17,751	14,281	8,846	10,188
경계	7,972	7,160	10,499	12,873	8,027	5,567	7,234	8,208	12,008	9,522	6,177	6,801
주의	6,066	5,862	9,180	11,179	6,419	4,426	6,148	7,317	9,136	7,142	4,842	5,108
중앙	4,161	4,564	7,861	9,484	4,811	3,284	5,062	6,427	6,265	4,763	3,508	3,415
경계	2,929	2,929	2,929	2,929	2,057	2,057	2,509	2,509	2,509	2,684	2,684	2,684
심각	2,520	2,520	2,520	2,520	1,672	1,672	2,144	2,144	2,144	2,316	2,316	2,316

### 3.3.7.2. 무

● 위기단계는 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함.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양값~생산비(표준편차) 이내	안정대	중양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주 의	중양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최저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경 계	중양값 + 표준편차의 1~2배 범위
최저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양값 + 표준편차의 2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18kg)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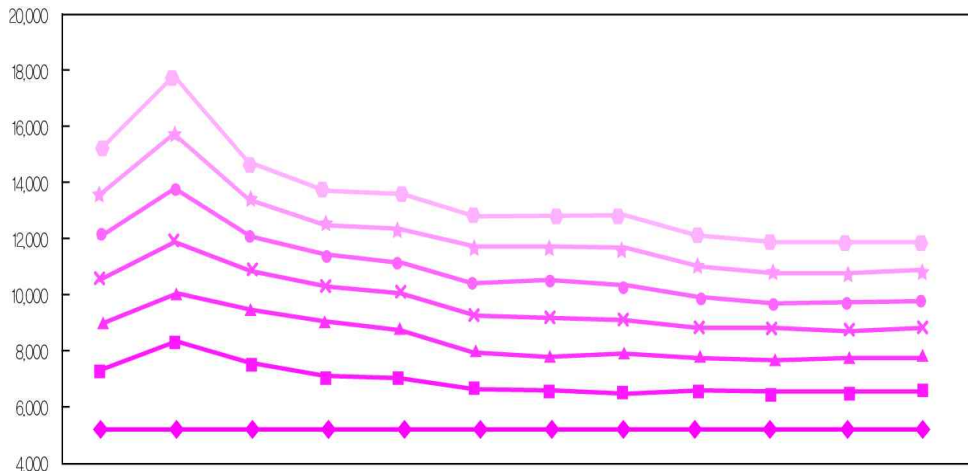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심각	15,615	13,626	14,957	17,183	18,280	21,862	26,312	36,239	31,840	40,614	30,026	21,274
경계	12,579	11,164	12,244	14,750	14,759	17,561	20,790	28,589	24,680	28,955	22,231	16,325
주의	11,061	9,932	10,887	13,534	12,999	15,410	18,028	24,765	21,099	23,125	18,334	13,850
중양	9,544	8,701	9,530	12,317	11,239	13,259	15,267	20,940	17,519	17,295	14,437	11,375
경계	6,508	6,238	6,816	7,268	7,719	8,957	9,744	13,291	10,358	8,472	6,642	6,425
심각	3,473	3,776	4,103	4,151	4,198	6,015	6,015	6,664	6,664	6,664	5,303	5,303

### 3.3.7.3. 건고추

● 위기단계는 aT조사 상품도매가격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함.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표준편차의 0.5~중앙값의 70%(평균 소득률)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중앙값의 70% ~ 최저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최저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600g)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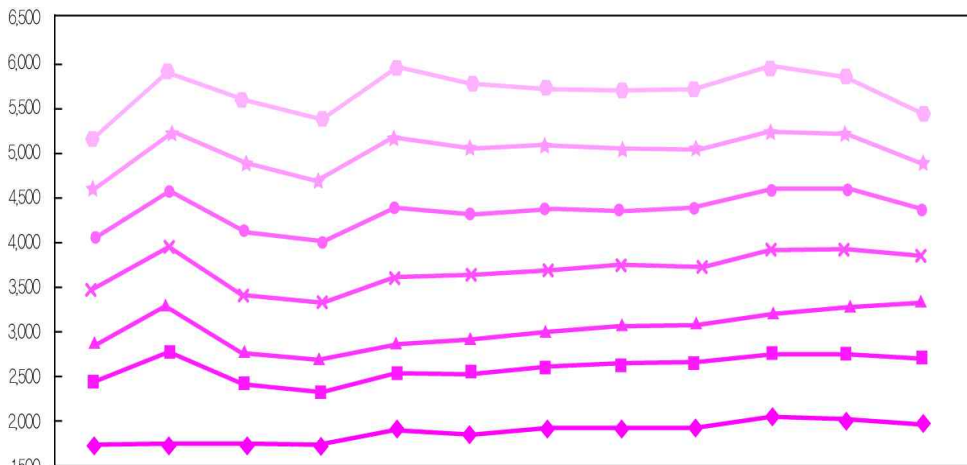
	8월	9	10	11	12	1	2	3	4	5	6	7
심각	15,144	17,684	14,595	13,645	13,470	12,844	12,923	12,738	12,054	11,816	11,751	11,801
경계	13,596	15,756	13,330	12,497	12,313	11,629	11,649	11,525	10,976	10,777	10,754	10,787
주의	12,048	13,828	12,065	11,348	11,157	10,414	10,375	10,313	9,898	9,739	9,757	9,774
중앙	10,500	11,900	10,800	10,200	10,000	9,200	9,100	9,100	8,820	8,700	8,760	8,760
주의	8,952	9,972	9,535	9,052	8,844	7,985	7,826	7,888	7,742	7,661	7,763	7,746
경계	7,350	8,330	7,560	7,140	7,000	6,633	6,553	6,584	6,511	6,471	6,522	6,513
심각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 3.3.7.4. 마늘

● 위기단계는 aT조사 상품도매가격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함.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표준편차의 0.5 ~ 중앙값의 70%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중앙값의 70% ~ 최저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최저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kg)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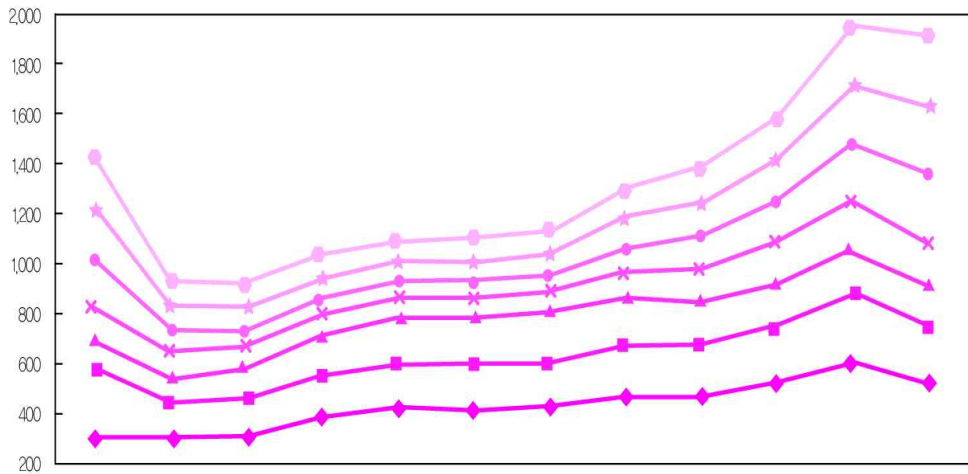
	6월	7	8	9	10	11	12	1	2	3	4	5
심각	5,103	5,857	5,530	5,311	5,886	5,724	5,707	5,643	5,641	5,909	5,828	5,393
경계	4,542	5,212	4,820	4,644	5,117	5,009	5,025	4,996	4,994	5,229	5,185	4,876
주의	3,981	4,566	4,110	3,977	4,349	4,295	4,342	4,348	4,347	4,550	4,543	4,358
중앙	3,420	3,920	3,400	3,310	3,580	3,580	3,660	3,700	3,700	3,870	3,900	3,840
주의	2,859	3,274	2,690	2,643	2,811	2,865	2,978	3,052	3,053	3,190	3,257	3,322
경계	2,394	2,744	2,380	2,317	2,506	2,506	2,562	2,590	2,590	2,709	2,730	2,688
심각	1,691	1,691	1,691	1,691	1,829	1,829	1,870	1,890	1,890	1,977	1,993	1,962

### 3.3.7.5. 양 파

● 위기단계는 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함.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2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표준편차의 1/2 ~ 중앙값의 70%(평균 소득률)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중앙값의 70% ~ 최저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최저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kg)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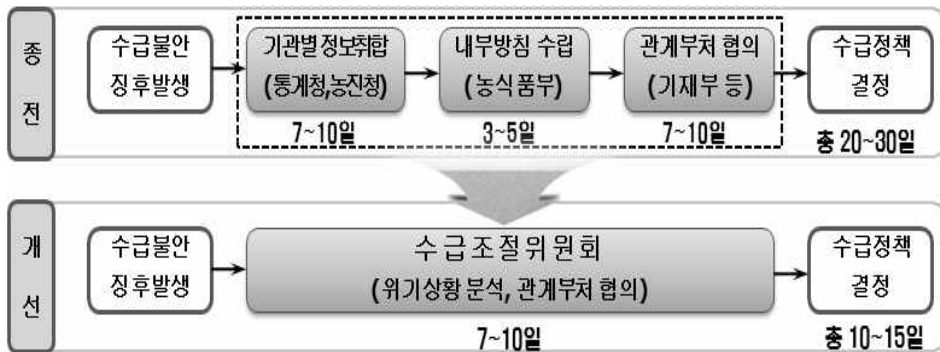


	4월	5	6	7	8	9	10	11	12	1	2	3
심각	1,429	926	912	1,029	1,085	1,094	1,119	1,288	1,380	1,572	1,937	1,910
경계	1,224	828	827	951	1,012	1,018	1,041	1,180	1,247	1,407	1,705	1,633
주의	1,019	731	743	874	939	942	963	1,071	1,113	1,241	1,473	1,355
중앙	814	633	658	796	866	866	885	963	979	1,076	1,242	1,078
주의	692	535	573	718	793	790	807	854	845	915	1,055	916
경계	570	443	461	557	606	606	620	674	685	753	869	755
심각	314	314	326	394	429	429	438	477	485	533	615	534

## 4. 수급조절 체계 개선 성과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관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됨.
  - 2013년 양과 가격이 수확기에 급등했으나, 수급조절위원회 합의로 생산자의 적극적 출하조절이 이루어져 수입조치 없이 가격을 안정화
  - 김장배추는 공급과잉 상황을 국민에게 조속히 알리고, 김장 일찍담기 등을 추진한 결과 소비자·기업의 소비촉진 참여로 가격폭락 사태 방지
-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급상황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기간이 크게 단축됨으로써 적기에 정책이 집행됨.

【 수급정책 의사결정 체계 비교 】



- 수급조절매뉴얼에 의해 신속하게 필요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소류 5대 품목의 가격 변동율('10~'12년 평균 : 19.0%→ '13년 : 12.9%)이 축소됨.

## 5. 향후 발전방안

-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농업관측정보 분산기능을 부여
  - 주산지화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체적으로 재배 의향 및 재배면적 신고를 통해 스스로 생산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 수급조절을 선도 할 수 있는 가격정보 전달 기능을 농협이 일정 부분 담당
  - 전국 하나로클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을 YTN, 모바일 앱('14.3월 구축)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가격선도 기능 수행 유도
- 농업관측정보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관측 모바일 서비스를 4월부터 실시 하고, 이용자가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전달체계 다양화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설치근거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 반영하였고, 향후 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품목별 위기단계·조치사항·관련정보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함.
  - 2013년 운영경험을 토대로 수급조절매뉴얼의 위기단계별 가격 재조정 및 조치사항 등 수정·보완 추진
- 아울러 단순한 수급차원에서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6차 산업과 연계를 통한 수급안정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